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니
이들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10일)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숟 불자 대상 ‘본격화’

조계종 중앙신도회, 법공양 캠페인 전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최초 종단본 〈불교성전〉을 보급하기 위한 법공양 불사가 전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올해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본 〈불교성전〉 갖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교성전〉은 조계종 종단 사상 처음으로 펴낸 종단본 불교 종합 지침서로 지난 2월 24일 봉정된 바 있다. 조계종은 2018년 불교성전편찬위원회를 꾸려 경 · 율 · 론 삼장과 선어록에서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발췌해 펴냈다. 조계종은 〈불교성전〉 편찬과 함께 이를 수지 독송하는 것을 신행문화 활성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와 종단 보고에서 〈불교성전〉 갖기 캠페인을 확정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 양성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5월 중 불사선포식 개최
인증 이벤트, 사경전 등
참여형 보급캠페인 전개
친구 · 동료 선물릴레이도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크게 5월 중 법공양 불사 선포식과 〈불교성전〉 릴레이 법공양, 인증사진 이벤트, 손글씨 공모전 등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의 핵심은 〈불교성전〉 릴레이 법공양으로 전국 불자들이 가족과 친구, 동료 등에게 종단본 〈불교성전〉을 선물하면 선물받은 사람은 다시 2명에게 〈불교성전〉을 선물하는 나눔 릴레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5월에는 〈불교성전〉을 소장한 사진을 들고 있거나 이를 활용해 수행하는 모습, 도반에게 선물하는 모습을 찍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증 이벤트는 종단본 〈불교성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인증 사진을 SNS, 해쉬태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중앙신도회에 발송하면 모바일 쿠폰 형식의 사은품이 증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신도를 대상으로 하며, 〈불교성전〉 4페이지, 2000자 내외로 필사 노트에 성전 문구를 정성스럽게 필사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중앙신도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불교성전〉 독후감 · UCC 공모전과 사찰 순회 릴레이 독송법회 등도 논의 중에 있다.

이밖에 〈불교성전〉을 구입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이메일을 통해 〈불교성전〉 문구를 전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메일링 서비스는 카드뉴스 방식으로 제작된다. 카드뉴스는 〈불교성전〉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천덕목과 수행법을 안내해 각 법회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법공양 불사는 불교계 언론과 함께 진행된다. 조계종 출판사를 비롯해 유력 교계 미디어 · 언론 매체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여 〈불교성전〉 홍보와 보급에 나선다.

불교성전편찬위와 중앙신도회 측은 “〈불교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불자들이 성전을 수지 독송해 신행활동에 활용할 때 있다”며 “사찰 법회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전법 현장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교성전〉은 인터넷 교보문고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요 사찰 서점을 통해 불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편찬 주무부서인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성전〉 출판을 맡은 조계종 출판사는 〈불교성전〉의 보급을 위해 사전 기획단계에서 가격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서울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지하 불교전문서점 ‘향전’과 전법회관 1층에 위치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직영 매장 ‘승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서울 봉은사, 평창 월정사, 대구 동화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등 전국 10여 개 주요 사찰서점 등에서도 〈불교성전〉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불자 역량 결집을 위한 정보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찰, 불자기업 등을 등록하고 신도 혜택 및 정보를 공유하는 불자 네트워크 일환이다.



도심 걸으며 코로나 치유 한국명상총협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4월 10일 진행된 양재천걷기명상대회서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유튜브 걷기명상을 지도하며 대열을 이끌고 있다. 행사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묵언 속에서 진행됐다. 〈관련 현장 기사 5면〉
글 · 사진=노덕현 기자

“합천 해인사역 위치 재검토하라”

유치위, 청와대서 기자회견
선정지 소유 현황조사 촉구
지역주민 릴레이 시위 예고
郡관계자 땅투기 의혹 제기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는 4월 12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에 포함된 합천해인사역의 위치를 기존 추진지인 합천읍 서산리가 아닌 합천군 야로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합천군이 기존 역사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군청 관계자의 땅투기와 관련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위원장 김태구)는 4월 12일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조건과 역사적 · 세계적 명분을 반영해 합천해인사역사 위치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위원회는 “합천해인사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반영하고 2개 도와 6개 시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곳은 합천군 야로면”이라며 “본 철도노선의 목적이 합천군만을 위한 것이 아닌만큼 철도규칙 제20조에 명시된 정거장의 설치 기준인 지형조건, 교통수요, 경제성, 인근정거장과의 거리 등의 기준을 전면 무시한 역위치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위원회는 합천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 합천군 공직자와 선출직 관계자의 땅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유치위원회는 “기존 역사 위치로 거론되는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 일원에 전현직 공직자와 선출직의 투기 의혹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 등기현황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합천읍 서산리 일대 2010㎡ · 3999.5㎡ 부지의 논이 前 합천군청 행정국장 서모 씨의 부인 명의로 등기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유치위원회는 “역사 유치 이면에 근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와 선출직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치위원회 측은 야로면 일대에 합천해인사역사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 가야산국립공원 등 연간 방문객 100만명 편의 제공 △경상남북도와 대구광역시 등 3개 시 · 도와 9개 시 · 군에 20분 이내 접근 가능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 역간거리 최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약 50km 지점 △향후 달빛내륙철도 건설시 환승역으로서 최적의 위치 등을 꼽았다. 이에 해당 지역에 역사가 설치될 경우 관광객 유치 및 물류 · 교통 중심거점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을 혁신도시로 견인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치위원회 소속 지역주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유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번을 정해 주민들의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 원력 2년만에 102억여 원

백만원력결집불사 2주년, 성과와 과제

백만불자 · 매일 100원 보시
원력 기반한 새 모연시스템
2020년 코로나19 사태지속
어려움 속에서도 동참 확산
10대불사 계획 지속적 추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불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 중흥을 일구자는 취지에서 2020년 첫발을 디딘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올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불교계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원력이 차곡차곡 더해져 102억여 원이 모연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진행 경과와 10대 목적불사 현황을 밝혔다.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에 따르면 출범 2년을 맞은 올해 3월 31일까지 모연된 총액은 102억 1242만 473원으로 집계됐다.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인도 부다가야 건립불사를 위해 기탁한 부지 2000평을 비롯해, CMS와 약정기탁, 발우저금통 배포 등 여러 가지 모금방법으로 개인과 사찰, 단체의 십시일반 정성이 한데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장 금곡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백만 명의 원력보살이 하루 100원씩을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불사"라며 "전종도, 나아가 모든 불자들의 대승원력에 기반한 참여로 세상과 함께하고자 시작된 만큼, 교구본사, 사찰, 스님, 불자 및 뜻 있는 수많은 분의 수희동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를 밝혔다.

금곡 스님은 이날 백만원력 10대 불사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10대 불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불사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및 '광제사' 대웅전 건립 △육해공군본부 호국홍제사 건립불사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불교요양원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나눔 기금 및 신도시 거점포교당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건립불사 등이 이미 건립에 착수해 순조로운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과 백년원력결집위원장 금곡 스님이 홍보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백만원력결집 10대 불사 추진현황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부지 매입 진행(8건 10필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올 5월 대웅전 상량식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광제사' 대웅전 건립	올 9월 상량식
육해공군본부 호국홍제사 건립	올 4월 착공 예정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2022년 상량식 봉행
10.27법난기념관 건립	2024년 착공 예정
불교요양원 건립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부지 매입 협의 중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5월 추진위 발족 예정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올 5월 이후 착공 예정
나눔 기금 · 신도시 거점포교당 조성	연중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불사는 지난해 11월 붓다팔라 스님과 건축기술자 등이 특별비자로 현지에 입국하는 등 직할교구사무처 주도로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올 4월부터는 숙소동과 보건소동 기초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 중 분황사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건립 불사는 각 44%,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웅전은 5월 초 정초식 봉행을 시작으로 9월 상량식에 이어 2022년 6월경 준공식을 봉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도 분황사와 광제사 부처님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부처님 봉안불사 자문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군종교구와 총무원 사찰교무팀이 함께 추진 중인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올 10월 교육관 건립을 마무리 후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불사는 2021년 6월 건축인허가 완료를 전제로 올 11월 불사를 본격화해 2022년 상량식, 2024년 준공식을 봉행할 계획이며, '10.27 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불사는 올 8월 관련부처의 적정성 검토 이후, 2022년부터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착공해 2027년 법난기념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사를 위한 토지 매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현재 성역화 부지로 4건 4필지 58.2㎡(168.9평), 조계사 구역 부지로 4건 6필지 1351.7㎡(408.81평)을 368억 4천만 원에 매입하는 등 토대 마련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또 승려복지회가 주도하는 불교요양원 건립불사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진행 중이며, 부지 매입 이후에는 불교요양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예경사업은 주변 기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구체적인 입불방식에 대한 공학적 기술검토 용역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경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 5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건립불사는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된다. 1차 불사는 연면적 총 206.62평으로 대웅전 70.5평, 부대시설 136.05평으로 건립되며 4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5월 착공 예정이다.

나눔 불사는 그동안 종단이 진행해 온 난치병 어린이 치료지원, 영등포쪽방촌 주민을 위한 자비선물을 비롯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스크 지원과 노숙자 및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짜장 자비공양 등이 대표적이며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곡 스님은 "CMS, 발우저금통, ARS, 계좌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자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신다"며 "구체적으로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 한사람 불자들의 원력이 모이고 그분들의 원력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 불자 100만 명이 마음을 모아 한국불교의 새 전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도 "지난해부터 발우저금통 약 9만 3천개를 배포했고 회수율은 약 35% 가량"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백만원력결집법회 등을 통한 현장 홍보와 모금이 완전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동참이 늘고 있다. 하루 100원, 100만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는 취지대로 더 많은 정성이 모일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02)6273-0108

"日정부,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철회하라"

조계종 · 불교환경연대 철회 촉구 성명 잇달아

13일 방류 결정에 규탄 여론 확산

일본 정부가 4월 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의 반발여론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가 비판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불교환경연대와 탈핵시민행동 등 종교시민사회계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거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와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위원회들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이 반생명적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 뿐 만 아니라 바다 속에 사는 뭇 생명들에 대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재앙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연쇄적인 살생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한국정부 역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와 상황을 밝히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도 4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뭇생명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의 보존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핵발전소 사고는 이토록 어렵고 지난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핵발전소 조기폐쇄만이 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지희 기자

관음종, 기후위기 대응 선포

관세음환경사랑, 4월9일 기자회견

대한불교관음종(이하 관음종) 산하 기후위기 대응 단체인 '관세음환경사랑(상임대표 법관)'이 4월 9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 낙가선원에서 '마음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를 주제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불자들이 주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관음종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기후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관세음환경사랑' 상임대표 법관 스님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세음환경사랑' 상임대표 법관 스님은 "기후위기는 생명의 근원적 질서와 연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 충족과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이 빚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관세음환경사랑'은 △빈그릇 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채식위주 식단 △천연수세미, 천연세제와 같은 친환경제품 선택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실내온도 적정히 유지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건강과 환경을 위해 근거리는 걷고, 원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실천 강령을 발표했다.

한편 관음종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 기후협약 채택 계기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하고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제56차 중앙종회를 통하여 '관세음환경사랑'의 단체설립을 승인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후 가입률 2배↑

국가제도 활용으로 노후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성과'
보험료 1인 3만6000원 지원
시행 후 가입률 2배 증가해
18%서 2020년 41%로 상승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러 사업 가운데 특히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한 대표적인 노후복지 제도이지만, 지난 2011년 파악된 조계종 스님들의 가입률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스님들의 불안정한 주거지와 소임, 소득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스님들이 행정적으로도 노후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종단 스님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구축한지 5년이 지난 현재,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1%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종단 분한신고 기간 중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한 스님은 응답자 5000여명 중 18%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이 94%, 비정규직 노동자가 42.8%라는 점에서, 단순비교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스님들이 안정적인 소임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가 소수인데다가, 주거지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스님들의 이 같은 특성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만65세 이후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수령액이 조정 지급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노후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다. 때문에 스님들의 저조한 가입률은 곧 국가의 사회보장 체제에서 소외된 비율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스님들의 노후복지 예산 체계에서 종단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승려복지회가 종단 스님들의 노후복지 일환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보험료 지원 계획을 공표하고 지역가입자 1인 기준 3만 6000원을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3만 6000원은 스님들의 월평균 소득을 40만원으로 산정해 지역가입자 보험요율인 9%를 적용한 액수다. 2017년 30%인 1만 800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 비율을 높여 현재 1인 3만 6000원 지원체계를 안착시켰으며, 상·하반기 재적 교구본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재원도 종단과 교구본사가 반반 부담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전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1%로 2011년 18%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화엄사와 송광사, 대흥사 등 일부 교구본사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됐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스님은 2963명이며, 1인 3만 6000원 기준으로 총 2억 4423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뿐만 아니라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정소득 이하 수준의 스님들도 연금보험에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졌다. 스님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저조할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보험공단은 관련 부처에 "조계종 승려의 경우 신분상 특수한 생활환경과 수행공동체 생활 등으로 인해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이 있다"며 "조계종이 요청한 바와 같이 소속 스님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고할 경우 적정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되, 신고 소득이 낮다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상당수 스님들이 출가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는 점에 착안해, 추납제도에 대한 안내도 지속하고 있다. 추납제도는 1회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스님의 경우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해 추가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차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톨릭과 원불교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 지원에 나선만큼, 스님들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향한 일방적 친절, 배려일까?

보리수아래, 에티켓 안내서 발간



사찰 계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넘어진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 도반과 함께 음식점을 갔을 때는 어떤 도움을 줘야할까? 무조건적인 친절은 배려일까 편견일까?

장애인을 만났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도 편견이나 참견으로 보일까 우려되어 고민한 경험이 있는 불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우리 만나면 이렇게 해요,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사진〉은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선보인 장애인인식 개선자료집 2탄이다. 장애 종류별, 상황별 마주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에티켓을 소개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도움의 방법 등을 담았다.

자료집은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유형, 장애인 등록 및 심사제도 등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부터 각 장애유형별, 상황별 만다는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을 소개한다.

계단과 턱에서, 계산대에서, 교통수단에서, 음식점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은지 구체적인 상황설명부터, 휠체어 장애인과의 대화, 장애인을 초대할 때,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과의 대화, 응대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15개 장애유형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지침을 소개함으로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에 따르면 장애인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의사 확인 없는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뜻한 친절과 배려는 장애 특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기반한 가운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설명이다.

보리수아래는 더 많은 불자들이 장애인과 스스럼없이 함께하는 도반이 될 수 있도록 에티켓 책자를 전국 주요사찰과 불교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최명숙 대표는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이 아직 부족해 장애인을 만났을 때 다소 어색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며 "에티켓 자료집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올해 마스크 지원만 40만장…사각지대 해소 앞장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방역나눔 '주목'

30여 단체·기관 통해 지원
전체 95% 가량이 후원연계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심각한 방역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가운데, 천태종 산하 단체 나누며하나되기가 지속적인 방역물품 나눔으로 소외이웃을 향한 자비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올 3월까지 27회에 걸친 자비나눔활동으로 사회 곳곳의 소외이웃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마스크 파동 등으로 방역물품을 구하기 쉽지 않거나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방역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나누며하나되기는 2020년 2월 안산과 인천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와 방글레데시, 베트남 등 국내 다문화 법당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해 이주민들의 감염 예방을 도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남부보훈지청, 대구광역시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 등은 물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단양군 일대에서도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한해 동안만 총 15회 나눔이 이어졌으며,



마스크 전달식 기념촬영 모습.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지원받은 단체와 기관, 계층은 30여곳 이상, 마스크 3만장 등 2억 8000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불과 3개월만에 12회 나눔활동을 전개했으며, 마스크 공급이 풀리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늘어 이미 3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전국 각지의 소외이웃에게 전달됐다. 마스크만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장 규모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 같은 활발한 나눔활동의 95%가 후원연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마스크 제작업체는 물론, 인연이 닿는 불자와 기업, 단체 차원에서 나누며하나되기를 통한 후원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는 불교와 무관한 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종교를 넘어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공공성과 신뢰감을 확보한데 따른 성과라는 분석이 많다.

진창호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라며 "4월부터 부처님오신날 주간까지 이미 20회 가량의 지원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 캠퍼스 명칭 변경 추진

미래지향적 이미지 추구
이사회 후 5월 결정키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캠퍼스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1984년 경주대학을 개편하며 경주캠퍼스로 명칭을 개칭한 이래 다시 명칭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학생, 동문, 교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캠퍼스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홍보전략위원회가 담당하는 이번 명칭 공모는 △한정된 지역 이미지 탈피 △글로벌·글로컬 캠퍼스로의 비전 △미래지향적 이미지 △불교 건학 이념 반영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는 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캠퍼스명을 바꾸자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최근 지방대학 위기가 고조되면서 본격적으로 캠퍼스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사전조사를 통해서도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학교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내부 공모 이외에도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명칭 변경 확정·발표는 법인 이사회와 교육부 승인을 거쳐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캠퍼스 관계자는 "경주캠퍼스는 오래된 이미지가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변경된 캠퍼스명은 2022년 수시입시부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1년도 상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2. 결계는 지원 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 지원,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 '승려복지' 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유의사항
1. 기지원자는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미제출시 지원금이 중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납부종료, 납부중단한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02-2011-1980~1, 1726~7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

승려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 구족계 수지 후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
 -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제외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승납, 세납에 상관없이 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매 안거때마다 반드시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승납 40년 이상 참석 예외)에 참석**해야 합니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을 시 승려복지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종류
■ 입원진료비 :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퇴원 후 1년 이내 신청에 한함)
 -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은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치료비 전액
 - 일반병원은 급여(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외래진료비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치과 보철비 : 만 65세 이상 스님의 임플란트, 틀니 보철비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분)

※ 미용 및 보양목적 입원진료비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촉탁의 진료비, 재가요양비지원(공단 급여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지정 또는 종단 소속사찰·스님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이용 시

■ 국민건강보험료(일부지원) :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지원
 - 동국대, 중앙승가대 재학 중으로 학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스님
 - 비구니 대중수행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스님 (금련사, 법계사, 해인사 자비원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지역가입자 1인당 월 36,000원 정액 지원

강남 한복판 사찰 명상길 조성된다

봉은사 · 강남구청, 4월 12일 업무협약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표 도심사찰인 서울 강남 봉은사 숲 속에 시민들이 산책과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명상길이 조성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4월 1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명상길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봉은사 대웅전 후사면 일대 현재 산책로가 대규모로 정비돼 누구나 함께할 자연속 힐링과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명상길로 재탄생한다.

총 예산 5억 5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명상길에는 벤치 · 음수대 · 안내표지판 · 산림욕체험장 등 시민 이용을 위한 시설이 세워지며 현재 흙길인 산책로의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 · 로프와 안전장치 등이 설치된다. 또한 녹화를 위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목이 식재되며 계절에 맞는 꽃장엄을 위해 화단 등도 개보수된다.

총 1.1km에 4개의 구간 구성
휴식 · 전망 · 산림욕 등 제공
향후 수행프로그램에서 활용

명상길은 1.1km에 걸친 총 4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진여문부터 봉은사 교육관 뒤편으로 향하는 휴게공간을 겸한 휴식길과, 봉은사 지장전과 북극보전 뒤편 숲을 통하여 미륵대불보전 전 사찰과 도심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망길, 미륵보전 뒤편으로 봉은사 템플스테이관 뒤편 소나무 숲 및 잣나무 숲을 통해 봉은사 인근 웨딩홀로 나올 수 있는 삼림욕길, 봉은사 인근 웨딩홀에서부터 다래헌과 보우당 뒤편의 대나무 숲 사이로 자연석 계단으로 조성되는 돌길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봉은사와 강남구청은 4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1km 구간의 명상길을 조성키로 했다.

봉은사는 명상길 완공 후 시민 개방과 함께 명상길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및 수행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장소가 바로 도심 속 공원과 숲"이라며 "시민들과 불자들이 산책하고 명상도 편하게 하게끔 강남구청이 지원해 감사하다. 명상길이 봉은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많은 분들이 봉은사 숲에서 치유의 기운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균 구청장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도심 속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봉은사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자연과 사찰을 도시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무협약과 함께 정순균 구청장은 봉은사 인근 산책로 일대를 라운딩하며 시설 개보수 지점 등을 점검했다.

봉은사 신도인 청정화 김하진 씨는 "평소에도 봉은사에서 산책로를 걷곤 하는데, 명상길로 조성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더욱 많이 걸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정순균 강남구청장, 안재혁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김현경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도 이겨낸 포교사 고시 응시생

4월 10일 포교사 고시 실시

전법 포교 일선에 임하는 조계종 포교사를 뽑는 제26회 포교사 자격고시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고사장에서 제26회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1차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고시에는 코로나19 기간임에도 일반 포교사 455명, 국제포교사 17명 등 총 472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은 중간 휴식시간 20분을 포함해 60분씩 1,2 교시로 치러졌다.

방창덕 포교사단 단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고시장을 방문해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심으로 서원한 포교사 지망생"이라며 "간절한 발원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부처님이 모르시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회 'A to Z' 전시로 만난다

연등회보존위 · 불교중앙博 '연등회' 특별 전시 개막식
오는 7월 23일까지 진행해



오는 7월 2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개막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는 4월 13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12월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진행된 '천 갈래의 빛, 연등회' 전시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전시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해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박종화 불교중앙박물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연등회는 신라시대부터 천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 속에 전승되어 온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축제"라면서 "이번 특별전은 연등회가 시대마다 창조적으로 전승된 역사를 되짚어 보고, 문화적 가치와 정성이 담긴 소중한 의미를 나누고자 기획됐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7월 2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은 총 3부로 진행된다. 제1전시실은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비롯해 연등행렬의 연원과 현대 연등행렬의 구성을 전시하며 제2전시실은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 등 제작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3전시실은 함께하는 연등회로 남녀노소, 내 · 외국인 등 참가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영상과 사진으로 채워진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직접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등회보존위원회(www.연등회.kr)와 불교중앙박물관(museum.buddihism.or.kr) 홈페이지를 통해 VR로 연등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감동과 역사의 연등회 사진 · 자료 공모전'을 통해 개인 연등회 자료를 함께 향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올해 축소 진행되는 연등회의 아쉬움을 달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EM지구사랑, 종교인 환경교육 열어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서
4월12일 교육일정 시작
환경부 교육 사업 선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 환경교육이 시작됐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대표 혜솔, 이하 EM지구사랑)은 4월 12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제1회 종교인 환경교육을 진행했다.〈사진〉

EM지구사랑의 이번 환경교육은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5대 종교 종교인 환경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EM지구사랑은 10개 종교단체 중 불교계 사찰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최미희 강사의 지도하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 첫 강의로 '생태전환, 삶의 방식변화와 실천'이 진행됐으며, 진주지원 신도 30여 명이 수강했다. 강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질병생태학자 황주선 박사의 '서식지 파괴와 전염병'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적 약속 및 실천법 등이 진행됐으며, 설문조사도 이어졌다.

이번 12일 진주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승단 교육이 진행된다. 이 강의에서는 강사로는 최서윤 생태시민교육연구소 공동대표와 심선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나서며 한마음선원 본원 및 국내외 지원을 대상으로 총 54차에 걸쳐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병행된다. 4월 18일 '기후변화 실태와 우리의 나아갈 길', 4월 19일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초생활습관교육1', 5월 2일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초생활습관교육2', 5월 3일 '녹색사찰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전체 교육일정은 11월 30일까지 총 54회로 126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 혜솔 스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위기에서 초래된 결과"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실현해야 할 실천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씩 변화해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EM지구사랑은 2018년부터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로 선정돼 3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전법교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010)5095-0509

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국사찰 마스크 지원

2600여 사찰에 50만장 배포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봉축행사인만큼, 마스크 지원을 통해 각 사찰을 격려하고 대면 · 비대면 행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8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사찰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단 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전국 사찰에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마스크 제조업체 ㈜에이스바이오메드(대표 한현우)와 마스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필요수량의 반을 구입할 시 나머지 반은 기부형태로 제공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스크 지원대상은 교구본말사를 비롯해 공찰과 산내암자. 포교소와 해외사찰, 군법당, 선학원 가등록 사찰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에 전국 2626개 사찰에 50만 장 가량이 전달될 예정이며, 종단에 기부하는 마스크에 한해 종단 CI인 '삼보륜'을 사용토록 승인했다.

조계종은 4월 30일까지 전국 사찰에 마스크 발송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4월 10일 명상길로 정비된 서울 강남 양재천길을 각산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시민들이 조용히 걷고 있다.

“코로나 블루 끝”…강남서 펼쳐진 국민 치유걷기

한국명상총협회, 4월 10일 서울 양재천서 걷기명상

2회 대한민국명상포럼 일환 거리두기 방역지침 지키며 천변 자연 길에서 힐링걷기

각산 스님, 유튜브 명상 지도 시민 동참 온오프 걷기 수행 스마트폰 활용 화두 정진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걷기 대회가 4월 10일 서울 양재천변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속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며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참불선원장)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4월 10일 양재천변에서 ‘양재천 걷기명상 대축전’ 을 개최했다.


명상포럼서 강연을 경청하는 청중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걷기명상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신록이 우거진 봄날 걷기명상을 진행 중인 시민들.

4월 9일 개막한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의 중심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산 스님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걷기명상 강연자인 이시형 박사, 베르나르 신부 등 시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오전 9시 30분부터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가 펼쳐졌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펼쳐진 공연에, 방역을 위해 2m 이상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흥겨움이 번져 나왔다.

공연 이후에는 걷기명상 대축전의 의미를 되짚고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식 및 강연이 바로 이어졌다.

각산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이른바 사회적 격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대자연 속에서의 걷기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찾고자 한다. 코로나의 근본 원인인 물질문명의 폐해도 화두로 삼자는 취지에서 강남 양재천서 걷기명상 대회를 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강남 양재천은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이자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오늘 양재천을 함께 걸으며 코로나로 지친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걷기명상은 묵언을 원칙으로 개인 간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영동6교를 출발해 영동3교를 돌아오는 1시간 코스로 진행됐다.

특히 다른 걷기명상과 다르게 유튜브 채널 중계를 활용해 각산 스님이 직접 화두를 던지고 걸으며 주의할 점을 계속 점검하며 진행됐다. 참석한 대중들도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고 이어폰을 끼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걸었다.

쾌청한 날씨로 이날 양재천에는 주말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주최 측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중들의 행렬을 비교적 사람들이 적은 데크길로 유도했다.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양재천변 꽃길을 걷는 대중들에게서는 코로나로 인한 시름이 사라진 듯 보였다.

걷기명상 후 참석자 중 보운 김윤하 씨는 “이전에도 걷기명상을 많이 했지만 이번 걷기명상은 각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걷다보니 더욱 좋았다”며 “최근 집안에만 있어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다. 오늘 지도받은 화두를 잡고 인근 공원이나 숲 등을 찾아 계속 걷기명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후미에서 함께 걸은 시민 김현숙 씨는 “강연에서 스님께서 나 밖에서 관조하며 걷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힘들 때,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체험해 보았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앞으로 걷기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한다는 생각보다 명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걸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음병 치유, 명상 구루들 ‘지혜’ 나눔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 강연 펼쳐져

코로나로 인한 마음병 치유를 위해서는 어떤 수행이 필요할까? 4월 9일부터 11일까지 펼쳐진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에서는 명상전문가들이 나서 코로나 마음치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선 명상에 대한 관심 촉구


의정 스님

기조강연에서는 연사들이 인류 문명의 위기 극복이 명상을 비롯한 정신문화 창달에 있음과 명상 중 불교의 선 명상에 그 핵심요소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의정 스님은 “문경 세계명상센터 건립을 위해 서구 유럽을 답사했을 때 엄청난 명상의 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700년 한국불교서 스님들의 참선 공간이 100곳, 일반 신도 수행처 20여 곳에 불과한데, 미국은 3000여 곳이 넘고 가는 곳 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앞으로 세계는 선과 명상이 21세기 문명을 이끌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계에서 과학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폐해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다.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개혁, 단순성, 일상성, 직관력, 창의력의 선 명상의 다섯 가지 장점이 이른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멀티태스킹 문화서 집중의 힘 찾자


안희영 연구소장

9일 명상포럼 1발제자로 나선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내가 경험한 서구의 마음챙김 명상’에서 서구사회에서 마음 챙김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명상의 갈 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참석 대중들의 MBSR 체험도 직접 지도했다. 안 소장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명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서양에서 마음 챙김이 각광받게 한 근본 이유다”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멀티태스킹 문화에서 집중력을 찾게 하는 좋은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명상 활용을 주문했다.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이 포럼에서 명상 지도를 하는 모습.

숨에 집중하면 근본 밝음 나와


금강 스님

제2 발제자인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선명상 수행법의 길잡이’ 를 주제로 한 발표서 “육조혜능 선사는 법석에 올라 수많은 대중들에게 ‘선지식이여’ 라고 불렀다. 이는 당신이 봤을 때 훌륭한 선생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 스님은 이어 “마음을 밝히는 것은 티끌하나 없는 훌륭한 그 근본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선가귀감〉의 첫 구절을 봐도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고 한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밝기에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외부의 어떤 고통이 와도 끄떡없다”고 강조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 갖길


마가 스님

제3 발제자로 나선 **(사)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은 ‘살아 있음에 감사하자’ 고 화두를 던졌다. 마가 스님은 ‘춤추는 인생 아름답다. 잠깐 멈춤’ 발표를 통해 “수행은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벽관을 하고 3000배를 하는 모든 것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기 위함이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코로나가 심각하다. 이럴 때 ‘살아 있다. 숨을 쉰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며 실참을 지도했다.

‘야, 너두’ 부분해탈 할 수 있어


월호 스님

제4발제자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야! 너두’ 라는 유행어를 차용해 ‘너두 해탈할 수 있어’ 라는 생활 속 수행지혜를 전했다. 스님은 특히 ‘부분해탈’ 을 강조하며 시민들도 하나하나 습관을 바꿈으로 큰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은 “처음부터 궁극적인 해탈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해탈이 속박을 풀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에 술 마시던 사람이 술 없이 살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없이 살면 그로부터 해탈한 것”이라며 “우리의 생활 속 부분해탈이 너무나 많다. 해탈이라는 것을 너무 격상시켜서 먼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호흡 바라보면 세로토닌 발생


이시형 박사

10일 제6발표를 진행한 **이시형 박사**는 과학적 효능을 예로 들며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보통 피곤을 느낄 때 간과하는 것이 몸이 피곤 한 것이 아닌 뇌가 피곤한 것”이라며 “우리의 뇌는 24시간 돌아간다. 쉬고 있지 않다. 뇌 피로가 가중되면 뇌의 증후군이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 박사는 “우리의 자연 치유력은 타고 난다.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하는 항상성이 유지되고, 재생과 면역 기능이 있다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온다”며 “자연은 세로토닌의 보고로 산과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21세기 최고의 기술 ‘명상’


구영선 씨

삼성전자 수석엔지니어인 구영선 씨는 제7발표에서 명상수행 체험결과를 대중들에게 전했다. 구 씨는 참불선원에서 각산 스님의 지도로 생활 속 수행을 십수 년간 해오고 있다.

먼저 명상산업의 트렌드에 대해 전한 구 씨는 “삼성전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명상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명상휴 모바일앱을 내고, 매주 수요일 점심에는 온라인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구 씨는 “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미소 보내기’ ‘업무로 힘들 때 긍정언어로 뇌의 작동방향을 바꾸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직원들과 진행하고 있다. 명상 활용으로 조직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업무만족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릇된 생각 버리면 그것이 ‘자성’


정과 스님

제8발표에서 **수좌회 선승 정과 스님**은 “수행의 핵심은 ‘모든 생각을 쉬어서 꾸밈없는 평상심을 누리는 것이 으뜸’ 이라는 임제 스님의 말씀에 드러난다”며 “우리는 생활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의심하지만 모든 생각은 뿌리가 있다”며 말문을 뗐다.

스님은 “본래의 마음을 찾으라고 하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음 자체가 본래의 마음이다. 망념을 여의고 생각을 쉬면 이는 자연히 드러난다.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마음먹고 들어가면 쉽고 간단하다. 옳고 그름을 버리고, 잘잘못을 잊으면 말끔히 훌훌 벗고 맑기만 하다”고 요지를 전했다.

독립운동도량서 상생도량으로 발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창건 109년 기념행사 봉행

4월 8일~12일 5일간 개최
학술대회, 토크쇼 등 다채
장학금 전달로 인재 불사
10일엔 지역 담장 제막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정법사는 4월 8일~12일 개원 109주년 기념 세미나 및 행사 '역사의 울림 속으로' 를 봉행했다.


1928년 3월 마산사립배달유치원 1회 졸업식.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여는 도량으로의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 마산 정법사(주지 도문)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원 109주년 기념 세미나 및 행사 '역사의 울림 속으로' 를 도량 일대에서 봉행했다.

정법사는 5일 간 학술대회와 초청강연, 법회 및 토크쇼 등을 진행해 통도사 마산 포교당의 건립 이유와 문화를 고찰하고 '담장 제막식' 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나아 갈 것을 밝혔다.

먼저 학술대회에서는 정법사의 창건 배경 설명과 교육의 초석이자 민족정신 도량의 정체성이 규명됐다.

주지 도문 스님은 "3.15 부정선거에 맞서 투쟁한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마산에서 정법사는 민족정신의 도량이 되었고 교육의 초석이었다"며 "10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자긍심을 찾고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법사는 사단법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기록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석문 스님은 "정법사는 우리나라 3대 포교당으로 개항지에 처음 문을 연 도량"이라며 "포교와 전법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정법사의 역사를 조명해 영남불교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정법사의 역사와 문화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찰하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1부 내빈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이어 △'개화시기 포교당 역사의 조명' △마산 정법사 목조보살상 연구-조성시기와 작가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일본 불교의 활동과 마산 포교당의 대응에 관한 고찰 △근대불교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논구-마산포교당을 중심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정법사는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정법사는 배달유치원(現대자 유치원)을 설립해 일제 강점기 민족의 뿌리를 지킨 민족교육 도량이다.

장학금 전달을 통해 정법사는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들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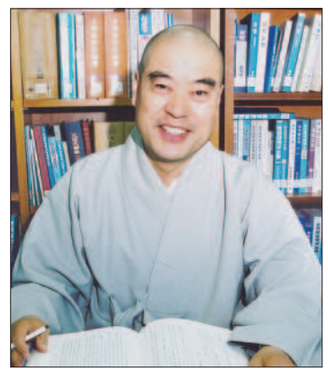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서울대 외 대학생 6명에게 각 150만원, 정희석 마산제일고 3학년 학생 외 4명에게 각 100만원, 정백현 마산구산중 학생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정다운 경남기술과학고 3학년 외 3명에게는 파라미타 특별장학금 50만원도 각각 전달됐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4월 10일 주민들을 위한 '담장제막식' 도 봉행했다. 정법사는 담장을 '마음을 열자' 라는 의미로 새롭게 꾸몄다. '아름다운 꼬부랑길 담장' 으로 이름 붙여진 정법사 담장은 꽃살문 형태로 꾸며졌다. 담장 제막식에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담장 공사를 맡은 이근세 작가, 서경호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은 "담장을 가교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창원시불교聯, 제6대 회장 정인 스님 선출

4월 22일 창원시청서 이 · 취임 법회


창원시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인 스님.

"창원불교연합회는 100만 창원 시민들을 위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불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남 창원시불교연합회 제6대 신임 회장에 창원 불지사 주지 정인 스님이 추대됐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4월 7일 불지사에서 제5대 회장 월도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제6대 회장에 정인 스님을 추대했다.

정인 스님은 추대 직후 창원시 발전과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 종교 지도자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창원불교를 이끈 스님들의 모범적인 행보를 따라 활동하고 널리 창원 불교의 화합을 이끌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 할 것"이라며 "불교를 통해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인 스님은 1953년 1월 경주서 출생해 1968년 해인사서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아이치가쿠엔대학원에서 수학하며 종교학 석사와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대학원장, 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2018년에 퇴임했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3선),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 전계대화상(율원장)과 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은 저서 〈현대인을 위한 불교교리〉, 〈부처님의 생애〉, 〈불교와 세계종교〉 등을 펴냈다. 창원시불교연합회 제5 · 6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는 4월 22일 오후 5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국민 행복 위한 팔만대장경 정근

제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4월 9~10일 정대불사 봉행


해인사는 4월 9~10일 경내에서 '제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법보종찰 가야산 합천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찬탄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됐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9일~10일 경내 일대에서 '제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행사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 진인성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서는 봉찬법요식과 호국금광명경 합송, 정대요잡, 공덕주 헌다례 등이 진행됐으며, 대중이 적은 반야심경 사경을 소전하는 의식으로 회향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고려왕조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은 여타 전쟁과 해결방법이 달랐다"며 "군신들과 백성들은 번뇌의 극치인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팔만사천법문을 선택했으며 사부대중이 조성을 하며 일체가 됐다. 팔만대장경을 만들면서 전쟁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팔만대장경은 평화의 비전이요. 정신이다"며 "우리 다 함께 평화의 길로 가자. 평화는 적극적인 도전의 삶이며 이기심이 아닌 통일된 이타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올해 기념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하며 불교문화체험인 △등 만들기 △에코파우치 만들기 △추억의 뽑기 △장경판전 조립하기 △솜사탕 나눔 △승려복지 CMS부스 △관음지장모연부스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21회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범어사 4월 22~26일, 금강계단 보제루서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 5일간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121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산림' 을 봉행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121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산림' 을 봉행한다. 범어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방장 지유 스님을 법사로 보살계 수계 산림 입재식을 봉행, 마지막 날인 4월 26일 오전 10시 법문과 수계식, 계첩 수여 등으로 일정을 회향한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산림은 성월 스님이 1909년 범어사 금강계단을 개설해 시작됐다. 올해 121회를 맞으며,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전계불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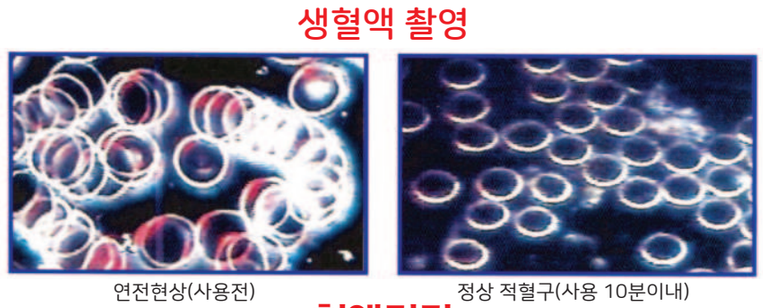
범어사는 "범어사에서는 역병과 천재지변으로 혼탁한 시절, 지계의 인연 공덕을 이어 가고자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 수계는 어둠에서 빛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번 수계 산림은 코로나19로 어두운 세상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만나는 인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보살계와 맞춰 열리는 개산대재는 코로나19로 연기하고 가을에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광주 어린이 포교 활성화 시작된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4월 12일 새 집행부 구성

신임대표에 동천 스님 취임 공동대표 지선 · 무등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월 12일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집행부 스님들과 대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상임대표 동천, 이하 어청련)이 제2기 신임 대표단을 출범하고 호남지역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어청련은 4월 12일 광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2대 신임대표 이 · 취임식을 갖고 상임대표 동천 스님(담양 호국사 주지)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공동대표에 지선 스님(무량선원 주지),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도 취임해 함께 호남지역 포교 사각지대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책을 맡았다.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도계 스님, 녹야원 효공 스님, 동구청소년수련관장 소운 스님, (사)동련 광주지회장 지장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한 이취임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연혁보고, 감사패 전달, 이임사(도성 스님), 취임사(동천 스님, 지선 스님), 축사(무공 스님, 도계 스님, 효공 스님, 이범식 신도회장), 이사 위촉 순으로 진행됐다.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동천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포교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대표 도성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매월 진행하는 숲법회와 요리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과 후원해 주신 대덕 큰스님, 후원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의 포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사에 앞서 도성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이사 스님과 재가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사찰 주지스님들과 후원자들을 잊지 않겠다. 앞으로 어청련이 더욱 발전하여 호남포교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청련은 2017년 11월 광주전남 불교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는 부처님의 전법정신을 기치로 출범시킨 포교 단체다.

주요활동으로 (사)동련의 어린이 포교활동과 (사)파라미타청소년협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 숲법회, 가족 요리법회, 어린이 수계 산림, 연꽃문화제, 전통탁발 재현행사 등을 진행한다.

최근 구례군으로부터 구례청소년문화의 집, 구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수탁 운영 중에 있다.

삼론종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 취임

4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취임법회 개최



삼론종 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이 삼론종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삼론종

대한불교삼론종 제10대 총무원장으로 해불 스님이 취임했다. 삼론종은 4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혜승 스님을 비롯해 전계화상 혜공 스님과 총무원장 해불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해불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수행가풍 및 승풍 진작과 종무행정 및 승단교육 체계화 등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사부대중이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퍼지고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불국정토로 코로나 시국에 세상의 안녕을 위해 화합하자"고 강조했다.

취임법회에서 종정 혜승 스님은 "대한불교삼론종의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 불국정토 완성에 용맹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 보은사 삼존불 점안식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가 지장보살 복장과 함께 이전에 조성했던 약사여래,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괘불(높이 280cm) 점안식을 갖고 지역 불교의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회주 현고 스님, 도제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해남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 위무띠 스님(미얀마)을 비롯해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현고 스님은 "앞으로 지역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는 사찰로 더욱 앞서 나아가기를 당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조성을 위해 십시일반 시주한 공덕에 감사하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신행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향의 소회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호대종사 제73주기 추모다례재

4월 10일 선운사서 개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일제 강점기 조선불교교정(종정)을 역임하고 근대 한국불교 초석을 놓은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73주기 추모재 및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4월 10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영호당 정호대종사 73주기 추모재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원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등 40여 본말사 대중스님이 참석했다.

상단 불공에 이어 분향, 사부대중 삼배, 영호대종사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에서 사부대중은 우리나라 불교 근대교육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석전 영호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긴 사부대중은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를 봉행했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律), 화엄(華嚴) 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교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 율사로 명성을 떨쳤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으며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간 조선불교교정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었다. 또 불교 친일화에 반대해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강원(大圓佛教講院)을 설립, 청담 스님, 운허 스님 등과 문인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김달진, 김어수 등을 양성했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 대표로 참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리불교대학 31기 18명 입학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4월 11일 관음사 3층 대웅전에서 학장 덕림 스님과 부학장 송동기,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택회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 오창록 이리불교대학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 앞서 권민호 불자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수계도 진행됐다. 학장 덕림 스님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불교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불교대학에 입학한 후 강사 및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법승 삼보를 존중하고, 보살도 정신을 투철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리불교대학은 2020년까지 총 7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성사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4월 1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조현대 신도회장을 비롯해 이영규 문화위원 등 대성사 7개 지회와 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경연에서는 '무소양초' (무조건 소원을 들어주는 초) 등 17개의 작품이 선보였다.

도원 스님은 "지구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토와 마음의 청정을 위해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성사 도량에서 가내평안의 소원을 이루는 기회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대회서는 대상 등에게 총 220여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 나누우리, 난치병환아돕기 나서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도산)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치료 후원금을 전달했다.〈사진〉 4월 13일 서울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사장 도산 스님을 대신해 운영이사 재홍 스님(서울 성주암 주지, 태고종 고시위원장)이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김영학 과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치료비 후원대상은 관악구에서 추천한 장폐쇄증 환자인 12살 배 모 어린이, 수두증을 앓고 있는 4살 권 모 어린이, 지적 뇌병변을 앓고 있는 9살 노 모 어린이다. 나누우리는 이들에게 각각 100만원 씩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사말씀



귀의삼보하옵니다

전북 정토사 주지 가법스님 소중한 인연 있는 사부대중님들께 정중히 인사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승이 전남 순천 송광사 천자암에서 30여 년의 수행 생활 이후 전북 정토사로 수행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토사 불사 등으로 경황이 없어 소중한 분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소승은 더욱 더 정진하여 불교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주지 **가법** 합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정토사(삼천동1가) 전화 : 010-3137-3785

말기암 · 환자 · 암 · 소멸 · 임상실험 후원비 도움 주실 분

허리 · 무릎 · 목 · 엉치 · 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부항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1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 해볼 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NAVER 척추근육강화기 검색



소자본지점 모집

예약 010-6575-7866

도쿄 중심서 선보이는 관세음보살

문화재급 관음상들 공개
시민에 문화 전파 기회

관음신앙 유명한 비와호 일대
관음당 본따 도쿄중심서 개관
비와호관음당 기금 마련 목적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 중심부에 개설될 예정인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 조감도.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관음의 마을'로 유명한 일본 사가현의 나가하마(長浜) 시가 도쿄 중심에 지역 문화재급 관세음보살상을 출장 전시하는 공간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을 개설한다. 불상들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역 문화와 신앙을 홍보하고 관련기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4월 10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는 관음당의 개설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불상을 공개하는 나가하마 시는 일본 최대 호수인 비와(琵琶)호의 북쪽에 소재한 도시로 7세기경 불교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10세기경에는 호수에 근접한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의 영향과, 비와호 섬인 치쿠부시마(竹生島)의 관음성지화 영향으로 관음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현재 시내에만 100여 개의 관음당과 130여 구의 문화재급 관세음보살상이 산재해 지역 주민들의 신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음당의 노후화와 관리인들의 후계자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2020년 봄, 나가하마 시는 관음상 소유자, 관리인 등 대표들과 함께 '관음의 마을: 기도와 생활문화 전승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문화재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 36개소의 관음당을 조사해 관음당 수선 및 불상의 도난, 화재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나가하마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도쿄에서 관음상을 전시했던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를 다시 재개관키로 결정했다. 관음하우스는 당시 4년간 약 7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브랜드 가치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착안한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에서는 나가하마 시에 산재한 관음당들과 관음상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기금 모금이 함께 진행된다.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는 관음당 입장료는 무료다. 대신 관음신앙 문화를 지원하는 회원제 서포터즈 조직 '나가하마 관음클럽'에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비는 나가하마 관음당과 관음상들을 위한 기금으로 이용된다.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는 전시공간을 임대해 전시가 진행됐던 것에 비해 도쿄 나가하마 관음당은 나가하마 시에 본사가 있는 운수회사의 도쿄지사 공간을 빌려 개설된다. 나가하마 시는 지역문화를 알리고 개보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나가하마 시 지역 인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운수회사 도쿄지사는 시내 23개 구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츄오(中央)구에 위치해있다. 이는 도쿄 중심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의의도 있다.

나가하마 시는 "전시장이 도쿄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도쿄역에서 전시장까지 안내선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관음당에 가장 먼저 공개되는 관음상은 8세기경 조성된 목조성관세음보살입상이다. 관음상은 2개월 간격으로 교체되며 총 8구의 관음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나가하마시 역사문화과 오타 히로시 학예관은 "나가하마의 열성적인 관음신앙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도 관음신앙을 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中법정선사, 선차 채엽 거행

제다과정 스님 참여
2010년부터 시작해

다라니 정화수로 재배
수행용 차로 소비예정



차밭에서 염불을 외우며 밭을 정화하는 법정선사 대중 스님들. 사진출처=신화통신

예로부터 차와 불교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불려왔다. 옛날 뛰어난 차인(茶人)들은 스님들인 경우도 많았고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선차(禪茶)를 이어오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4월 8일 중국 '신화통신'은 선차를 만드는 사찰을 특별 보도했다.

항저우시 시후(西湖)에 소재한 법정선사(法淨禪寺)는 수나라 때 세워진 천년고찰로 지역에선 관음성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대대로 차를 만들어온 법정선사는 2010년부터 사찰 차를 '법정선차(法淨禪茶)'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고 매년 봄마다 차를 채엽하는 의례인 '개차절(開茶節)'을 봉행하고 있다.

법정선사는 "법정선차의 역사는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육우의 〈다경〉에 이 지역의 사찰들이 차를 만든다고 한데서 시작한다"고 전했다.

4월 1일, 우중 봉행된 2021년 개차절에서는 법정선사 대중스님들이 범패를 부르며 향로를 앞세워 차밭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천수다라니로 정화한 물을 버들가지로 뿌리며 차밭을 돌았다. 이런 나무에 가피를 내려 정화하는 의식과 함께 개차절 예불을 봉행했다. 이어 스님들이 공식 첫 채엽을 진행했다.

채엽부터 12단계로 만들어지는 법정선차는 모두 스님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다. 부족한 일손은 외부 차농들의 손을 빌린다. 외부 차농들이지만 이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모두 채식을 하며 재계한다.

법정선사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차이며, 수행의 일환으로 만드는 차이기에 특별히 신경 쓴다"고 밝혔다.

실제 차밭은 차 찌꺼기와 유기농비료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선차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제다되기에 시판하지 않고 사찰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다.

첫 채엽을 마친 차는 그 자리에서 제다돼 불전에 공양 올려졌다. 만들어진 차는 용정차(龍井茶)라고 부르는 녹차의 일종으로 신도회와 개차절에 참석한 이들이 함께 차를 나누는 다과회에서 시음됐다. 이 개차절에서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는 법정선사의 후이화 스님이 즉석에서 차를 만드는 모습을 시연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겔룩파 최고학위 '게쎄 하람빠' 수여

중국 자체시험기준 통과, 13명 최종합격



티베트 스님이 라싸 조캉사원에서 열린 게쎄 하람빠 최종 토론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차이나 데일리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4월 6일 티베트 스님 13명이 게쎄 하람빠 학위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게쎄' 학위는 티베트어로 '선지식'을 뜻하며 약 20년 간 전통강원교육 뒤, 토론과 필기시험을 거쳐 본산 방장 스님들의 심사 하에 주어지는 법계다.

이는 삼장법사에 준하는 법계로 게쎄 스님들은 각 강원의 강사와 주요 소임들을 맡는다. 이중 최고 법계는 '게쎄 하람빠'로 그 시험이 매우 엄격하고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게쎄 하람빠 학위를 받은 이는 現달라이라마를 포함 3명뿐이다.

4월 5일, 티베트 자치구 라싸 조캉사원에서 개최된 게쎄 하람빠 최종 토론시험에서는 13명의 응시자가 게쎄 하람빠를 취득했다.

새로 게쎄 하람빠가 된 스님들은 티베트 자치구와 운남, 사천, 청해성 등지의 티베트족 자치주에 산재한 12곳의 주요 사원과 강원에서 수학한 스님들이다. 지난해 9월 라싸 데붕사원에서 진행된 시험응시자격 시험에서 통과된 23인의 스님들 중 절반 이상이 합격한 것이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번 시험에서는 라싸의 라뙤 사원에서 응시한 롭상 땐다르 스님이 수석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은 중국 정부의 중앙소수민족 · 종교문제 위원회 주도 하에 2004년 제정된 게쎄 시험 표준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 시험에는 티베트어 경전뿐만 아니라 한문경전에 대한 필기와 토론시험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 불교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없이 교계 자체시험을 진행한다. 2018년 중국정부는 인도에서 게쎄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원에서 추방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스님, 수중동굴서 나흘만에 구조

수행을 위해 동굴에 들어가 폭우에 고립



구조대원이 마나스 스님의 혈압을 재고 있다. 사진출처 = BBC뉴스

영국 주요 언론지 '가디언지'와 'BBC' 등은 4월 8일 태국 구조대원들이 나흘 동안 침수된 동굴 안에서 스님을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구조된 스님은 프라 아잔 마나스(Pra Ajarn Manas, 46) 스님으로 이 스님은 명상을 위해 핏사눌록에 있는 프라 사잉감(Phra Sai Ngam) 동굴에 들어갔다가 비계절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고립됐다.

현지 주민들은 "스님은 매년 성지로 알려진 동굴들을 순례하며 명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집중 호우에 동굴에 들어간 스님이 돌아오지 않자 주민들은 당국에 신고했으며, 동굴에 고립된 스님을 구조하기 위해 17명의 다이버들이 자원해 들어갔지만 수위가 높아져 구조를 멈춰야 했다. 구조대는 스님에게 식량이나 적절한 보온대책이 없기 때문에 체력 고갈과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을 것을 가장 우려했다.

다행히 11일 비가 그치고 7명의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극적으로 스님을 구조했다. 스님은 체온이 떨어지고 약간 탈진증상이 있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동굴 내 높은 곳에 위치해 저체온증 문제는 없었다.

구조소식을 들은 태국인들은 2018년 태국 북부 치앙라이 동굴에 2주간 고립됐던 청소년 축구팀을 상기했다. 당시 태국 네이비실즈와 동굴 다이버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라진 축구팀 아이들을 구조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4~4/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교리 이해한 만큼 수행 실천 힘도 커진다"



정선 쌍윳따 니까야
이중표 역해
불광 펴냄/3만9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 불교학계를 대표하는 이중표 명예교수(전남대 철학과 · 오른쪽 사진)의 〈니까야〉 번역 시리즈, 그 세 번째 〈정선 쌍윳따 니까야〉가 출간됐다. 제 1권 〈정선 디가 니까야〉, 제 2권 〈정선 맛지마 니까야〉에 이어 출간된 이 책은 불교 교학과 수행을 주제별로 정리해 세밀하게 설명한다.

〈쌍윳따 니까야〉의 '쌍윳따'는 '같은'의 뜻인 '쌍'과 '묶다'의 뜻인 '윳따(yutta)'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집성(集成)'을 의미하는 '니까야'와 함께 쓰여 '주제별로 정리한 가르침의 모음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디가 니까야〉가 당시의 외도(外道) 사상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입장을 드러내고, 〈맛지마 니까야〉가 불교 수행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준다면, 〈쌍윳따 니까야〉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 교리, 수행법을 보여줌으로써,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우리말 불경 번역에 30여 년 간 매진한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는 총 2,889개의 짧은 경(sutta)으로 구성된 〈쌍윳따 니까야〉에서 500여 개의 핵심 경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402개의 경으로 편집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장은 과감히 생략하고, 중복 내용이 많은 경들은 하나로 통합했다.

불교 교학의 핵심인 온(蘊) · 처(處) · 계(界) · 연기(緣起)의 다각적인 설명과 8정도(八正道) · 7각지(七覺支) · 4념처(四念處) 등 이른바 37도품(道品)으로 알려진 불교 수행법의 설명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다.

〈쌍윳따 니까야〉의 특징은 짧은 내용의 경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편집한 데 있다. 여기에서 주제의 핵심은 교학과 수행이다. 교학은 온(蘊) · 처(處) · 계(界) · 연기(緣起)가 중심이고, 수행은 37도품(道品)이 중심이다. 이 바탕에는 4성제와 12연기가 있고,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통찰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러한 교학의 바른 이해와 믿음 없이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어두운 숲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쌍윳따'라는 말이 '주제의 묶음'을 의미하듯이, 이 경들은 총 56개의 쌍윳따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5개의 큰 장(章)으로 나뉜다. 장은 빨리어로 '왁가(vagga)'라고 불리는데, 흔히 '품(品)'으로 한역된다. 따라서 〈쌍윳따 니까야〉는 5왁가, 56쌍윳따, 2,889개의 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천신(天神)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붓다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2개의 핵심 쌍윳따를 선정하고, 500여 개의 경을 정선(精選)하여 402개의 경으로 취합, 정리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게송품(偈頌品)〉 111경, 제2장 〈인연품(因緣品)〉 97경, 제3장 〈온품〉 81경, 제4장 〈입처품(入處品)〉 93경, 제5장 〈대품(大品)〉 20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쌍윳따 니까야〉, 총2889개 경으로 구성
5백여 개 핵심경 선정 후 402경 재 편집
반복되는 문장 과감히 생략한 후 통합해

제 1장 〈게송품〉에서는 당시의 종교적 신념 속에 존재하는 여러 천신과 왕, 바라문 등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불법을 찬탄하면서 문답 형식을 통해 불교를 다른 사상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제 2장 〈인연품〉에서는 붓다의 깨달음의 핵심인 연기(緣起)를 주제로 하는 경들을 통해서 연기를 다각적으로 설명한다. 제 3장 〈온품〉에서는 5온(五蘊)에 관련된 경들을 통해 불교에서 일체법(一切法)으로 이야기하는 5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제 4장 〈입처품〉에서는 12입처(十二入處)에 관련된 경들을 통해 붓다가 세간의 근원, 즉 일체(一切)라고 천명하신 12입처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5장 〈대품〉에서는 8정도(八正道), 7각지(七覺支), 4념처(四念處) 등 소위 37도품으로 알려진 불교 수행법에 관계된 경들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다.

붓다는 대화 상대자들에게 바른 이해와 통찰을 강조한다. 그래서 몇 번이고 대화 상대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되묻는다. 또한 붓다 스스로 어떻게 마음 작용을 이해하고 통찰했는지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바른 이해를 통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바른 이해와 통찰이 수반되지 않은 수행은 말 없는 마차와 같기 때문이다. 바른 이해는 깊은 통찰을 부르고, 깊은 통찰은 잘못된 수행을 방지한다. 올바른 수행이 곧 열반에 이르는 길임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쌍윳따 니까야〉의 이야기 전개와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각 품(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제 1장 〈게송품〉은 붓다의 가르침을 찬탄하면서 통관(通觀)하고, 제 2장 〈인연품〉은 불교사상의 핵심이 연기(緣起)임을 천명한다. 제 3장 〈온품〉과 제 4장 〈입처품〉을 통해 연기하는 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제 5장 〈대품〉은 이러한 교리에 근거하여 세간을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를 〈디가 니까야〉와 〈맛지마 니까야〉의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디가 니까야〉는 당시의 외도사상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입장을 드러내고, 〈맛지마 니까야〉는 불교 수행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준다면, 〈쌍윳따 니까야〉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 교리, 수행법을 보여줌으로써,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쌍윳따 니까야〉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이를 짧게 정리하면 '마음 작용의 원리를 밝히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 작용은 항상 괴로움이 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생이 이를 이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리와 수행을 주제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쌍윳따 니까야〉를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다. 이를 다시 축약하여 한 권의 책으로 담은 것이 〈정선 쌍윳따 니까야〉이다.

▲저자 **이중표 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서 불교학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외 여러 책이 있으며, 역서로는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불교와 양자역학〉 등이 있다

마음법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진심법문
범각 스님 지음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각 2만2천원

'마음작용'을 집중적으로 설법한 법문집
진심 법문, 선사들 禪 일구에 설명 법문

마음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법한 법문집 〈진심법문〉이 출간됐다.

'진심법문'은 평소 선사 스님들의 선(禪)을 일구에 설명하는 법문으로 상당법문(上堂法文)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책을 출간한 밀양 사천왕사 주지 범각 스님〈사진〉은 구체적인 설명으로 선(禪), 마음법을 안내하고 설법한 내용을 정리해 담아두었다.

이 책 〈진심법문〉의 핵심 주제를 범각 스님은 한마디로 "'식심견성(識心見性)'이라 설명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인 마음 바탕은 움직임이 없고 항상 평등하며 진여이고 일심이지만, 그 본성에서 작용되는 마음은 너무도 다양한 변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내 마음이고 아닌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마음작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문하는 것을 진심법문이라 불렀습니다."



〈진심법문〉을 위한 주요 경전은 〈금강경〉과 〈법화경〉 그리고 〈화엄경〉 등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근간을 두고 〈아함경〉 등 소승경전도 아우르는데, 특히 마명보살의 저서인 〈대승기신론〉을 기반으로 삼고 돈황본 〈육조단경〉을 근본으로 했다. 아울러 스님이 10년간 무문관 수행을 통해 체험한 법열의 순간들을 소개해 독자들은 생생한 수행 결과를 함께 접할 수 있다.

책 〈진심법문〉은 지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BTN불교TV 방송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해 엮었다. 방송 기간 동안 쏟아진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에 모두 답해 줄 수 없는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출간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방송은 총 48회에 걸쳐 진행 됐으며, 책은 44장 총 4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2권까지 출판됐으며 3, 4권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펴낼 예정이다.

범각 스님은 "이 책은 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법이지 결코 학문적인 이론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아울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현대사회서 통용되는 평이면서도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심법문은 유튜브 '대풍범각 TV' 혹은 '대풍 범각 스님의 진심법문'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방송을 볼 수 있다.

▲저자 **대풍 범각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대본산 범어사서 前 대각회 이사장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0년간 무문관서 수행 정진했다. 현재는 견불사, 실상선원, 사천왕사 창건주 겸 회주이며 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밀양 사천왕사, 부산 대각정사, 부산 공덕원 주지를 맡아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각권 판매〉



❶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❷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❸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❹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❺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❻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❼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❽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❾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❿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⓫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⓬재물을 부르는 진언
⓭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직지〉 사랑이 불교사랑, 나라사랑”

이양우(66) 직지나라사랑 詩낭송회 회장



제2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6월 19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

“직지 널리 알리는 게 가장 큰 포교”
2020년 ‘직지나라사랑시낭송회’ 결성
〈직지〉관련 시집 〈직지의 숨결〉 발간
“직지詩 없어, 원고청탁해 詩 모았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그대는 아는가 / 흥덕사 양병산의 산자락 바람에 실린 / 무심의 깨달음인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 직지의 숨결을 // 〈중략〉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 직지의 숨결 영원하리라” 〈이양우 作, 직지의 숨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직지심체요절)〉는 문화재적 가치와 더불어 불자들에겐 성보 중의 성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우리만의 것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산술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인 〈직지〉의 가치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이다.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회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의 이양우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이하 시낭송회)는 6월 19일 오후 1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이하 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 이 회장이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직지 알리기’의 실천이다. 충청북도 대회와 번갈아 열리는 대회로, 벌써 두 번째를 맞는다. 이와 같이 이 회장과 시낭송회가 시낭송대회를 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대중이 〈직지〉의 존재, 그 내용과 가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직지〉를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시낭송대회는 〈직지〉와 관련된 시를 낭송하는 대회로 〈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낭송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예선과 본선을 치르게 된다. 자유시 1편을 낭송한 녹음파일과 낭송시 원문 한글파일을 제출해 예선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하면 후원단체인 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지정 시 33편 중에서 1편을 골라 본선에서 낭송한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선 통과자 발표는 6월 7일 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금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은상 2명에게는 각 상금 30만 원과 함께 상장과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되고, 동상 3명에게는 각 상금 20만 원과 함께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며, 장려상 5명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다.

이 회장은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직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고 왜 시와 시낭송대회를 통해 〈직지〉를 알리게 됐을까. 청주 출신인 이 회장은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2013년 8월에 주인공인성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꿈을 키우는 주인공 리더십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부터 3년간 청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취약지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2017년부터는 3년간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그 교육 중에는 ‘시(詩)로 배우는 인성교육’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낭송 지도사를 양성하게 됐고, 시낭송 지도사들이 모여 시낭송회를 만들게 됐다. 2020년 4월, 회원 30여 명의 ‘주인공세상 시낭송회’가 만들어졌고 2020년 8월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시낭송회의 이름이 바뀐 것은 〈직지〉를 위해서였다. 시낭송회가 주최가 되어 대회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제1회 대회는 주인공인성협동조합이 주최했다.



이양우 회장은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개최해 〈직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으로, 고려 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했다. 책은 백운 화상이 과거칠불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말씀 중에서 참선 수행자들이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은 것이다. 한국불교의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선불교 전통은 이 〈직지〉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직지〉의 ‘直指’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뜻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이 〈직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것과 〈직지〉를 알리는 데 ‘시(詩)’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직지〉의 내용과 의미 때문이다. 자신의 터전인 청주에서 태어난 ‘직지(直指)’라는 두 글자에서 ‘시(詩)’라는 글자를 떠올렸으며, 또한 자신이 평소에 큰 가르침으로 품고 살아가는 대행 스님의 “주인공에 믿고 맡겨라”라는 가르침과 백운 화상의 ‘직지’ 곧 “바로 가리키는 마음의 본성”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낭송대회를 또 하나의 전달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직지〉를 찬탄한 시를 모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 시집 〈직지의 숨결〉을 발간했다. 4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한 시집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위한 것으로 〈직지〉를 노래한 시 60여 편이 실렸다. 이 시들은 이 회장이 지난해부터 직접 시인들을 섭외하고 청탁해서 모은 시이다. 이 회장은 〈직지〉와 관련된 시들로 직지시낭송대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직지〉와 관련된 시는 한두 편에 불과했다.

“‘바로 가리키다’라는 뜻의 ‘직지’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직지의 가르침은 마음에 사랑과 정이 흐르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과 협동이 되며 존중과 배려의 밝은 사회가 되는 길입니다. 〈직지〉의 본향 청주에서 두 번째로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개최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직지〉의 가치와 〈직지〉 안에 흐르는 정신을 알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에 담긴 가르침의 내용과 〈직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를 통해 알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10월에 열리는 제2회 충청북도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에서는 청소년대회도 함께 열 계획이다. 문의,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회 (043)221-3090



‘옴’ 자 만다라, 고려

액운막는 다라니와 부적들 판화로

‘마음의 백신–아시아 다라니와 부적’ 展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4월 20일~5월 30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별전 ‘마음의 백신-아시아 다라니와 부적’을 개최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 네팔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역병 등의 국가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의 백신’으로 사용했던 다라니와 부적 60점을 비롯해 인출할 때 사용했던 목판 20여 점, 다라니와 관련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인 제진언집 등 고서 20여 점 등 총 100여 점을 전시한다.

한국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옴’자다라니, 보협인다라니를 비롯한 조선시대 한글로 음사된 보협인다라니 등이 전시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부적으로 인간의 모든 액을 소멸하고 만복이 깃들게 한다는 ‘백살소멸만복부’ 목판과 인출본, 칠성부, 삼재부, 호작도 부적, ‘금란장구부’, ‘산신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석경당에 새겨진 ‘대불정존승다라니’ 탁본을 비롯하여 일본의 가마쿠라시대의 ‘대수구다라니’가 최초로 공개되며, 티베트 소장품으로는 ‘수구다라니’ 등을 찍었던 판목들과 대형 능엄주 등이 전시된다.

예로부터 다라니는 불보살의 지혜와 복덕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범어로 된 주문으로, 원문을 번역하지 않으며, 이 주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이것을 외우면,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는다고 했다. 인도의 고대 철학 사상인 아트르바 베다와 인도의 고대 의학인 아유르 베다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인도, 티베트,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어 발전했으며, 도교와 민속 신앙과도 결합되어 각 나라마다 독특한 부적으로도 발전했다.

전시기간에는 다라니와 부적 만들기 체험 템플스테이를 주말마다 운영하여, 박물관교육을 통해 전시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33)761-7885.

박재완 기자

죽비요법

본승은 건강이 안좋아 그동안 일제치하로부터 맥이 끊긴 불교 전통 의술을 발굴, 연구를 해오면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지구촌에서 오늘도 무수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어려울 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인가?
우리 불교가 지금 말법에 이르러 더는 발전할수 없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며 좁은 법당안에서 목탁만 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잘못된 식생활로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창출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병들어 고통받는 불자들만이라도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죽비 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비요법은 어려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죽비요법이란?

통증 및 혈을 두드리어 근육과 혈을 풀어주는 요법이라 합니다. 어느날 은사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죽비로 두들겨 통증을 없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체에 대한 지식과 혈에 관해 또는 불교 전통치료 처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치료법을 발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도인과 스님들이 침술등으로 치료를 하는줄 알고 있으나 의료법에 걸려서 마음놓고 치료를 할수가 없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묻혀가는 신비한 도술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 죽비요법을 발굴, 연구 개발한바, 침술보다 더큰 효력이 나타남을 경험을 통하여 알수가 있었고 하여 불가의 스님이나 일반 승도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우리 불교가 거듭날 수 있음에 뜻을 두고 소개하고자 하며, 한마디로 신비의 요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물론 수료 자격증까지 받을수가 있고 의료법에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천수천안 요법 ,무상심신법, 디딤법등 다각면에 요법을 경험하고 배울수가 있고 앞으로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여 세계적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수강생 모집 : 선착순 7명 ☘ 교육시간 1주일 , 수강료 500만원 ☘ 침식제공, 자격증 수료(1기생만 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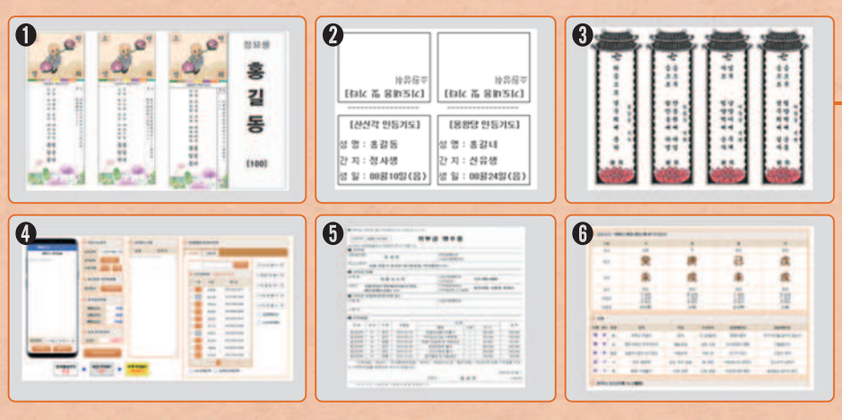
문의전화 033) 574-2387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석존합장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잊혔던 고려 중도종·도문종 재조명

〈中道宗〉 〈道文宗〉

김영일 · 민순의, 〈한국불교학〉 제97호서 논문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사 안에서는 다양한 종파가 나타나고 사라졌다.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에서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당시 다양했던 불교 종파에 대한 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졌다. 이는 〈태종실록〉 6년 3월 27일자 기사에서 확인된다.

"조계종(曹溪宗)과 총지종(摠持宗)은 합하여 70사(寺)를 남기고, 천태종(天台宗)·소자종(疏字宗)·법사종(法事宗)은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화엄종(華嚴宗)·도문종(道文宗)은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자은종(慈恩宗)은 36사를 남기고, 중도종(中道宗)·신인종(神印宗)은 합하여 30사를 남기고, 남산종(南山宗)·시흥종(始興宗)은 각각 10사를 남길 것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11개의 종파가 확인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한 4개의 종파와 군소종파 7곳이 구성돼 있다. 이중 중도종과 도문종은 한국불교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언급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 제97호에서는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단 한 줄 등장했던 중도종과 도문종을 재조명하는 논문인 '고려시대 중도종 연구(김영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도문종 연구를 위한 일(一) 가설(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이 발표됐다.

이들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중도종 등 군소종파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선행연구는 1937년 발표된 김영수의 '오교양종에 대하여'가 그 시작이다. 당시 김영수는 해동종은 법성종(法性宗)이고, 이는 동시에 중도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대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열(이재병)은 자신의 저서 〈조선불교사의 연구(1946)〉에서 "유가종의 후신이 중도종이며, 해동종의 후신이 도문종"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허흥식도 '미약하나마 해동종과 도문종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봤으며, 김영태 역시 '해동종은 종파이고 법성종은 학파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영태는 '유가종의 후신이 중도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봤다. 그에 따르면 신라시대 '유가(瑜伽)'는 교학 중심의 법상 유가와 수행 중심의 밀교 유가로 나눠 사용됐는데, 고려시대에 법상 유가는 유가업이 되고 밀교 유가는 신인종과 총지종이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상의 유가는 고려 초·중기 유가업을 거쳐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은종'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전북 완주 경복사지에서 출토된 '중도종' 명문 기와와 탁본. 역사에서는 한 줄만 기록된 '중도종'의 사찰로 경복사가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종실록〉 6년 기사서만 언급
당시 11개 종파들 존재 추정 돼
"중도종, 삼론종 영향" 첫 주장
도문종, 정토신앙 연계된 종파

이처럼 군소종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괭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새로운 학설들을 제기했다. 김영일 외래교수는 "중도종은 중국 삼론종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종파"라고 봤다.

그는 태종 6년의 실록 기록에 나타난 11개 불교종파의 사상적 기원을 분류했다. 이를 살펴보면 시흥종은 인도 소승학, 인도 남산종은 계율학, 자은종은 인도 유식학, 신인종은 인도 밀교학(신밀), 총지종은 인도 밀교학(구밀)으로 각각 연결된다. 소자종과 법사종은 중국 천태학, 화엄종은 중국 화엄학, 조계종은 선종학, 도문종은 한국 원효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중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관학'이 누락돼 있다는 게 김 외래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중관학에 사상적 연원을 둔 중국 삼론종을 주목했다. 삼론종의 법맥 중 승랑은 고구려 출신으로 종파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김 외래교수는 "중도종은 인도 대승불교의 중관학에 뿌리를 두고 중국에 와서는 삼론종으로 번성하다가 한반도에 와서는 주로 고구려에서 활동했다. 그 뒤 고려시대에서는 교세가 위축됐을 것"이라며 "여말선초에 이르러서는 '중도종'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역사 속에 얼굴을 비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순의 연구원은 화엄종과 통합된 도문종에 대해 종파명인 '도문'에서 정토신앙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또한 신라 화엄종부터 이어진 정토신앙의 연결성을 조명하고 도문종과 화엄종의 통합 요인을 살폈다.

그는 중국 수~당대 활동한 도작(562~645)이 〈안락집〉에서 불교의 일대 교설을 성도문(聖道門)과 정토문(淨土門)으로 나눈 정토교판을 주목했다. 성도문은 스스로 번뇌를 소멸해 성인이 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자력신앙의 길이고, 정토문은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힘입어 해탈에 이르는 난이도가 낮은 타력신앙의 방법이다. 도작은 말법시대에 성불 방법으로 정토문을 주장했다.

민 연구원은 "정토교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자력행과 성도문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가치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됐을 수 있다"며 "만일 그들이 교학 연구의 고도로 지적인 불도 수행을 추구한 불교 엘리트들이었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추정했다.

이어 "도문종의 '도문'은 '성도문'의 약칭이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성스러운 '진리의 문(道門)'으로서 성도문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불가능한 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림사 중창 180년사 기록하다

장흥문화원, 20년 만에
〈보림사 중창기〉 증보판
180년간 246회 불사 기록
조선후기불교사 중요 자료
논문 · 유리건판 사진 추가

전남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보림사는 체징 스님이 860년 개산한 가지산파의 중심사찰이다. 보림사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 사찰 중창에 대한 기록이다. 약 200년에 가까운 보림사의 중창 기록을 망라한 자료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장흥문화원(원장 고영천)은 최근 〈역주 보림사 중창기〉 증보판을 발간했다. 지난 2001년 발간 이후 20년 만에 재발간된 〈역주 보림사 중창기〉는 보림사 중창기 역주부터 취변록 역주, 보림사 연표·역대 주지·사진 등의 부록, 관련 연구 논문 등이 수록됐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 현봉 스님이 역주한 '신라국 무주 가지산 보림사 사적'도 담겼다.

〈역주 보림사 중창기〉 증보판의 감수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맡았으며, 편자로는 김희태 前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 양기수 장흥향토사연구회장,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참여했다.

현재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보림사 중창기〉는 가로 29.7cm, 세로 41.7cm, 총 201면으로 책의 표제는 〈신증장흥여지승람〉이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은 보림사 중창 기록이 대부분이다.

〈보림사 중창기〉는 1658년부터 1838년까지 180년동안 보림사에서 이뤄진 총 246회의 중창 불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 중창기의 기록은 매우 세세하고 꼼꼼하다. 각종 건물의 중수나 신축, 단청, 번와, 부도, 범종, 불상, 석탑, 불기(佛器), 불화 등 각종 불사 내용과 시주, 공사, 권화, 목수, 화원, 장인, 화주, 주지 등 참여자 명단을 별도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각종 불사에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고, 어떤 건물·불상·불화 등이 중수되거나 조성됐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180년간의 불사에는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고 총 883인이 참여했으며, 50인의 역대 주지 명단도 확인된다.

또한, 고법당 불사는 20회, 신법당 불사는 13회, 단청 불사는 18회, 번와 불사는 16회가 각각 확인된다.

편자로 참여한 김희태 前 전남도 문화재위원은 자료집에 수록된 '조선 후기 〈장흥 보림사 중창기〉 고찰'을 통해 "180년간 246회에 걸쳐 사찰의 중창 불사를 기록한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사찰지나 사적기도 사찰 연혁과 중수 기록을 담고 있지만, 일정 시점에서 자료를 집성해 편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때 그때 불사 기록을 정리한 중창 기록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부여군,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사업 전개

미디어 파사드 구축… 문화재 야행 등 활용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활용사업을 활발히 펼친다.

부여군은 "코로나19의 전 국민 예방접종으로 하반기에 집단 면역을 기대하며 올 가을철을 겨냥,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4월 13일 밝혔다.

부여군은 먼저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구축사업을 가을철 예정된 3대 축제인 세계유산축전, 문화재 야행, 백제문화제 기간에 함께 진행한다.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방된 야외 관람형 콘텐츠 필요성에 따라 기획됐다.

부여군은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통해 정림사지에 미디어 IT 기술을 접목해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젝션 맵핑(사물의 표면에 영상을 투사), 인터랙티브(쌍방향) 아트 등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한다. 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디어 아트쇼를 구현해 야간 경관 및 볼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부여군과 공주시, 익산시가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유산축전은 부소산성 및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등 부여군이 보유한 세계유산 4곳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은 9월 초에는 정림사지와 석탑로, 관북리 유적 일대에서 '백제 달빛 아래 사비 밤 마실'을 주제로 문화재 야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정기월례학술대회

5월 7일 줌 통한 화상회의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5월 7일(금) 오후 2시 줌(Zoom)을 통해 제136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월례학술대회는 비교종교학, 불교경제학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강지언 박사(서울대)는 '비교종교학으로 본 초기선종의 수행과 근대 불교학의 수행연구- 〈돈오입도요문론〉을 중심으로'를, 김성옥·이상호 교수(동국대 다르마칼리지)는 '불교와 자연, 그리고 불교경제학·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를 중심으로'를, 최선일 문화재감정위원(문화재청)은 '순천 송광사 천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조각승 석삼'을 각각 발표한다.

학술대회 논평자로는 마해륜 강사(고려대), 이명호 강사(중앙승가대), 신해스님(동국대)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들어지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떨어져 지극히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신명나는 본사 견본으로 소리 비교만 해보세요!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 시설들과 장난감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5

▶ 16회 예고
탁실라 부근에 도착한 수시마는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수괴를 처단하기 위해 생포작전을 편다. 다행히 반란수괴에게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들이 협력하여 생포작전을 성공한다. 그리하여 수시마는 탁실라에 무혈입성한다.



코끼리 경주서 1등 양보한 아쇼까

코끼리경주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강가강을 건너갔다. 매년 코끼리경주대회가 열리는 너른 들판으로 모여들었다. 경주에 나설 코끼리들은 어제 이미 강가강 들판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코끼리경주대회는 빠딸리뿌뜨라 성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날랜 젊은이들이 코끼리를 탔다. 수드라처럼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탈락했다.

빈두사라는 강가강을 건너기 전에 강변 임시군막에서 대신들과 차담을 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도 동석했다. 소젖과 사탕수수 즙으로 만든 따뜻한 짜이는 빈두사라를 한껏 흡족하게 했다. 칼라따까가 보고했다.

"대왕이시여, 왕비님들은 방금 전에 강을 건너가셨사옵니다."

"왕자들은?"

"경기에 참가하는 수시마 왕자님은 진즉 건너가 지금쯤 코끼리와 함께 계실 것이옵니다."

라다굽따도 말했다.

"성민 중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선전에서 이미 정해졌사옵니다."

"몇 명을 선발했소?"

"50명이 겨뤘는데, 그중에서 5명을 뽑았사옵니다. 5명 모두 코끼리를 타고 장사하는 바이샤 젊은이들이옵니다."

라다굽따는 경기에 임할 선수를 이미 선발했다고 보고했다.

"수시마 혼자만 참가하는가요?"

"예, 그렇사옵니다."

"아쇼까는 왜 참가하지 않소?"

"참가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옵니다."

"아쇼까는 몇 살인가요?"

"아쇼까 왕자님은 15세이옵니다."

빈두사라는 조숙하고 건장한 아쇼까가 아직도 열다섯 살이란 보고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작은 키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체격으로만 보자면 스무 살 안팎의 청년 같았던 것이다.

이윽고 빈두사라와 대신들이 2층 배에 올라탔다. 빈두사라는 대신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시중드는 하인들은 어둑한 1층에 남았다. 1층은 노잡이 격군들이 배 좌우로 9명씩 서서 노를 잡고 있었다. 선장이 '출발!' 하고 외치자 격군들이 일제히 노를 저었다. 절지동물의 발처럼 생긴 노들이 배 밖으로 나와 강물을 세차게 밀어내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층은 1층과 달리 덮개만 달려 있어 아침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훤했다. 게다가 강바람까지 불어와 시원했다. 궁궐 안에만 있던 빈두사라는 아침 햇살과 강바람에 몸을 맡겼다. 마음이 들떠 앞으로는 코끼리경주대회를 한 해에 두 번을 치를까 하고 생각했다.

한편, 선수들은 경기장에 미리 도착해서 코끼리를 타고 경주연습을 했다. 왕자 대표로 참가하는 수시마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코끼리를 타고 달리곤 했다. 왕자들과 겨뤄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복동생인 왕자들이 큰형님이라고 예우해서 추대했으므로 더욱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쇼까는 수시마의 코끼리를 어루만지며 응원했다.

"형님, 이 녀석은 전투코끼리지요?"

"그래, 경호대장이 골라 준 거야."

"보나마나 1등이네요. 성민 대표들이 탄 코끼리는 장사꾼이 타는 느린 녀석들이니까요."

"얕보다가는 큰 코 다쳐. 장사꾼들 타는 코끼리는 사람 같이 영리하게 움직이거든."

"1등 하면 부왕(父王)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너는 왜 참가하지 않는 거야?"

"16살부터니까 자격이 안 돼서요. 내년에는 꼭 참가해서 형님에 이어 2등 할게요."

수시마가 말했다.

"왕자들 중에서 네가 단연 뛰어난 실력이라고 경호대장이 말했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참가해서 부왕을 기쁘게 해줘."

"형님께서 내년에도 참가해서 1등을 하셔야죠."

"아니야, 나는 어쩌면 탁실라로 갈지 몰라."

"왜요?"

"항상 그곳이 문제야. 소요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큰 반란으로 이어지면 큰일이야. 아마도 부왕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낼 것 같아. 왕자는 반란 같은 것을 진압할 줄 아는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부왕께서 형님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을 위한 배려네요."

"맞아. 그러니 거부할 수 없지. 가기 싫어도 내색을 해서는 안 되지."

아쇼까는 수시마가 부러웠다. 부왕 빈두사라는 왠지 수시마를 자신보다 더 신뢰하는 것 같아 속으로 질투가 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복형 수시마는 아쇼까에게 늘 너그러웠다. 어린 아쇼까가 부탁하는 것은 형으로서 다 들어주었다. 아쇼까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 다르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어머니가 궁중이발소에서 일할 때였다. 어머니에게 이발을 한 수시마 왕자가 여기 저기 어머니의 실력을 자랑하곤 하여 아버지 빈두사라의 이발까지 하게 된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다르마는 여전히 궁중이발사로 살고 있을지도 몰랐다.

수시마는 아쇼까보다 키도 크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만큼 용모가 아름다웠다. 다만, 행동이 우유부단한 데다 과보호 속에 자란 탓에 눈치가 없고 대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예의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었다.

갑자기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경기를 알리는 신호였다. 빈두사라는 일산 아래서 경기장을 주시했다. 경기 출발선에는 코끼리 여섯 마리가 나와 있었다. 그런데 선수는 수시마를 비롯하여 다섯 명뿐이었다. 한 선수가 보이지 않았다. 칼을 허리에 찬 경호대장이 빈두사라 앞까지 헐레벌떡 뛰어왔다. 빈두사라가 일산 아래서 일어나 물었다.

"무언가?"

"참가 선수 중 한 명이 기권했사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옵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소장 생각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으므로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사옵니다."

빈두사라가 눈을 매섭게 뜨며 말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어찌 경기를 늦춘단 말인가?"

"그렇다면 다섯 명으로 경기를 치르겠사옵니다."

"코끼리가 여섯 마리이니 그럴 수는 없지."

빈두사라가 좌우를 살펴보더니 눈길을 한 곳에 멈추었다. 그곳에는 아쇼까가 다르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쇼까도 빈두사라와 눈이 마주쳤다. 빈두사라가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아쇼까를 출전시키시오."

"대왕이시여, 아쇼까 왕자님은 참가자격이 안 되옵니다."

"어쩔 수 없소. 쓰러진 선수 한 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소."

"그건 그렇사옵니다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오. 백성들을 위해서도 지금 경기를 시작해야 되오."

라다굽따가 급히 아쇼까에게 달려가 빈두사라의 말을 전했다. 아쇼까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경기장으로 나갔다. 경기장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아쇼까는 장사꾼 바이샤가 길들인 젊은 코끼리 옆에 섰다. 경기장 끝머리 깃발들이 선 곳에서 흙바람이 불었다. 흙바람은 선수들의 전의를 솟구치게 했다. 아쇼까도 흙바람을 보는 순간 흥분했다. 코끼리가 달리면 흙바람이 이는데 벌써부터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깃발들이 있는 곳까지 코끼리를 타고 다섯 번을 돌아야 끝나는 경주였다. 라다굽따가 빈두사라에게 다가와 말했다.

"다행이옵니다. 아쇼까 왕자님이 나서주었사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오."

나팔 소리가 또 다시 울려 퍼졌다.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자, 여섯 마리의 코끼리가 출발선에서 튀어나갔다. 처음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달렸다. 옆에 코끼리들이 지치는 것을 보아가며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다. 한 코끼리가 흥분해서 속도를 냈지만 다섯 마리는 개의치 않았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걱정이 하나 있사옵니다."

"말해 보시오."

"아쇼까 왕자님은 참가자격이 없는데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수시마가 탄 코끼리는 용감한 전투용이오. 그럴 리는 없을 것이오."

"전투코끼리부대 대장 말을 들어보면 아쇼까 왕자님은 출중하다고 하옵니다. 만약에 아쇼까 왕자님이 1등을 하고 수시마 왕자님이 2등을 한다면 그것도 걱정이옵니다."

"아쇼까는 자격이 없으니 당연히 수시마에게 우승이 돌아가야 될 것이오."

빈두사라는 별 고민 없이 말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국가적인 공식경기에서 부정하게 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빈두사라는 수시마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곧 수시마를 탁실라 부왕(副王)으로 보내 그곳의 잦은 소요를 뿌리뽑을 계획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빈두사라의 짐작과 달리 코끼리들이 반환점까지 네 번을 돌고 나서는 하나 둘 쳐졌다. 단연 전투코끼리를 탄 수시마가 앞섰다. 그 뒤를 아쇼까가 달렸다. 그러나 다섯 바퀴를 돈 뒤에는 수시마가 탄 코끼리가 지친 탓인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금세 아쇼까가 탄 코끼리가 수시마가 탄 코끼리 옆까지 좇아왔다.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쇼까를 응원했다. 아쇼까가 탄 코끼리는 수시마의 것보다 작고 줄곧 2등으로 달렸기 때문에 약자를 응원하는 셈이었다. 아쇼까가 흙먼지 속에서 수시마에게 소리쳤다.

"형님이 1등을 하셔야 돼요."

아쇼까는 발로 코끼리 배를 차면서 속도를 늦추었다.

"형님, 제가 탄 코끼리도 지쳤나 봐요!"

"너나 나나 마찬가지군."

수시마가 탄 코끼리가 다시 앞서 달렸다. 다시 역전이 되자, 사람들이 놀라서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빈두사라와 대신들, 다르마를 비롯한 왕비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응원했다. 결국 수시마가 1등으로, 아쇼까는 2등으로 들어왔다. 장사꾼 출신들의 코끼리도 속속 출발선으로 경중경중 돌아왔다.

시상식은 축제 분위기였다. 빈두사라는 경기장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궁중악대가 온갖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수시마는 1등상으로 눈부신 황금가면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였다. 수시마가 아쇼까를 강가강 모래밭으로 불러냈다. 모래밭에는 수행자들 움막이 한두 군데 있을 뿐 경기장과 달리 스산하고 한적했다. 수시마가 말했다.

"아쇼까야, 왜 나에게 양보했니?"

"형님 실력이면 1등이 당연해요. 한 순간 저와 나란히 달린 것은 코끼리 때문이죠."

"네가 1등을 했어야 지금 내 맘이 더 편할 거야."

"아니에요. 형님은 1등 할 자격이 충분해요. 그러니 상관 마셔요."

"난 탁실라로 곧 떠날 것이다. 다녀온 뒤에는 너를 더 보살펴 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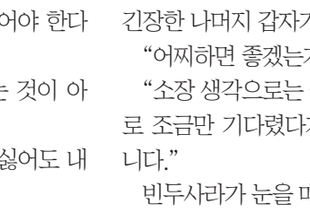
"고마워요. 형님."

수시마는 이복동생 아쇼까를 껴안았다. 땀 냄새가 두 사람의 코를 찔렀다. 강가강 너머로 망고처럼 노란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래밭에 앉아서 지는 석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뱃놀이하는 사람들이 두 왕자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⑧ 위앙종풍의 특징과 그 전개



▶ 한줄 요약
중국의 위앙종을 전승한 순지는 선리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원상(圓相)을 활용했으며, 화엄교학과 선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순지, 깨친 후 실천방향 구체적 제시

한국의 선종사에서 소위 나말 여초에 출현했던 구산선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선종 오가 가운데 위앙종(潙仰宗)의 전승으로 형성된 오관산 순지(順之)의 역할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중국 위앙종의 선풍을 전승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시에 팽배해 있던 화엄교학과 선의 융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선리의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원상(圓相)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 순지

오관산 순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의 비문 '了悟和尙碑', 〈조당집〉 권20 등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 이에 의하면 평안도 패강(浿江, 현 대동강) 지역 출신으로 속성은 박(朴)이고 생몰은 미상이다. 황해도 오관산(五冠山) 오관사(五冠寺)에서 삭발하고, 속리산으로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 헌안왕 2년(858)에 입당하였고, 중국 위앙종의 조사인 앙산 혜적(仰山 慧寂, 807~883)에게 공부하였고, 그 법을 계승하였다. 거기에서 순지가 앙산에게 공부한 모습은 마치 안회가 공자 곁에 머무는 것과 같고, 가섭이 부처님의 앞에 머무는 것과 같았다고 전한다. 귀국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후 874년에는 신라의 왕실에서 송악군(松岳君)의 원창왕후(元昌王后) 및 아들인 위무대왕(威武大王)이 오관산 용암사(龍巖寺)를 희사하였는데, 이후에 서운사(瑞雲寺)로 개칭하였다. 65세에 입적하였는데, 호는 요오(了悟)이며, 탑명은 진원(眞原)이고, 제자로 승현(曾玄), 낭허(朗虛), 영광(令光) 등이 있다.

2. 표상현법의 원리

순지의 선사상의 근본은 표상현법(表相現法, 圖相現法)과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순지가 보여준 표상현법이란 형상을 드러내어 불법의 이치를 설명한다는 것인데, 주로 원상을 활용한 까닭에 원상현법이라고도 말한다. 이를테면 갖가지 부호 · 상징 · 그림 등을 제시하여 선의 이치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위앙종의 표상현법은 방(方)과 원(圓)이 잘 계합된다는 의미에서 방원묵계(方圓默契)라고도 한다. 〈조당집〉에는 구체적으로 18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지겸(至謙, 1145~1229)이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선어록에 제시되어 있는 표상현법과 관련된 법어 내지 원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원상의 방법을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은 남양 혜충(南陽 慧忠?~775)이었다. 혜충은 어느 날 한 승이 찾아오자 손으로 땅에다 원상을 그려놓고 그 안에 '일(日)'이라는 글자를 써넣었다. 이로부터 혜충은 9%가지 원상을 확보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납자들을 교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혜충은 일찍이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처음으로 활용한 선사로 알려져 있는데, 표상현법의 경우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혜충이 활용한 9%종의 원상은 그의 제자 탐원 응진(耽源 應眞)에게 전승되었다. 응진은 이것을 활용하여 예언적인 참기(讖記)와 함께 위앙종의 조사인 앙산 혜적에게 전승하였는데, 앙산은 그것을 위앙종풍으로 확립하였다.

이들 9%종의 원상에 대하여 일찍이 명주(明州)의 양화상(良和尙)이 40칙으로 정립하였는데,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여섯 가지 명칭으로 분류된다. 하나, 원상(圓相)은 절대의 진실인데 그 자체로 드러난 것이 일원상이라는 것이다. 둘, 의해(義海)는 모든 삼매의 뜻이 일원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 암기(暗機)는 주 · 객의 대립이 발생하기 이전의 작용을 가리킨다. 넷, 자학(字學)은 일원상이야말로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이다. 다섯, 의어(意語)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여섯, 묵론(默論)은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의미에 부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명칭은 원상이 본래부터 그 자체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뿐만 아니라 그 작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화의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다.

3. 표상현법의 교화방편

(1) 순지는 원상을 표현하여 불법을 나타냄으로써 납자들에게 깨침을 증득하는 것에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사대팔상(四對八相)이고, 둘째는 양대사상(兩對四相)이며, 셋째는 사대오상(四對五相)이다.

첫째, 사대팔상은 불성(佛性) 및 불성을 깨닫는 행위를 상대시킨 것으로서 일종의 교화방편에 속한다. 제일대는 소의열반상(所依涅槃相) 대 우식인초상(牛食忍草相)이다. 소의열반상[○]은 열반에 의지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불성(理佛性)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고, 불성을 활용하는 형상이라고도 말한다. 우식인초상[원상 안에 牛字가 들어 있다]은 마음을 의미하는 소가 깨달음을 의미하는 원상에 계합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견성성불상(見性成佛相)이라고도 말한다.

제이대는 삼승구공상(三乘求空相) 대 노지백우상(露地白牛相)이다. 삼승구공상[원상 안에 牛字가 세 개 들어 있다]은 삼승이 공을 추구함에 점차적으로 불성을 터득한다는 것이다. 노지백우상[원상 안에 牛字가 들어 있다]은 일승을 가리키는 백우(白牛)로서 법신을 터득한 모습으로 방편이 아닌 진실을 가리킨다.

제삼대는 계과수인상(契果修因相) 대 인과원만상(因果圓滿相)이다. 계과수인상[원상 안에 牛字가 들어 있다]은 과에 계합하는 인을 닦는 모습을 나타낸다. 인과원만상[원상 안에 卍字가 있다]은 인(因)과 과(果)가 모두 원만한 모습을 나타낸다.

제사대는 구공정행상(求空精行相) 대 점증실제상(漸證實際相)이다. 구공정행상[원상 아래 牛字가 있다]은 여법하게 수행하여 공을 깨닫는 모습을 나타낸다. 점증실제상[원상 안에 王字가 있다]은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나타낸다.



강서성 의춘 서은사에 있는 앙산 혜적 선사 사리탑. 사진제공=정운 스님

순지, 중국의 위앙종 선풍을 전승해 부호와 상징 등 제시 禪이치 보여준 표상현법, 方 · 圓 계합된 '방원묵계'

둘째, 양대사상은 원상과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허(虛)를 버리고 실(實)로 나아가는 수증관을 보여준다.

제일대는 상해유교상(想解遣教相) 대 식본환원상(識本還源相)이다. 상해견교상[원상 안은 人字이고 원상 위는 牛字이다]은 분별상과 분별지해를 일으키는 교학을 버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식본환원상[원상 위는 牛字이다]은 근본[本]을 이해하여 근원[源]으로 돌아간다는 모습을 나타낸다. 병은 없애고 법은 남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대는 미두인영상(迷頭認影相) 대 배영인두상(背影認頭相)이다. 미두인영상[원상 안은 人字이고 언상 아래는 牛字이다]은 머리를 모르고 그림자에 홀린 것으로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밖으로 헤매는 모습을 나타낸다. 배영인두상[원상 안에 人字이다]은 그림자를 물리치고 머리를 찾은 것으로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모습을 나타낸다.

셋째, 사대오상은 네 개의 상[四相]은 상대가 있지만 마지막 하나의 상(相)은 상대가 없는 것이다.

제일대는 거함색개상(擧函索蓋相)[( ) 대 원상(圓相[○])이다. 거함색개상은 원상 안에 왼쪽 반원의 모습만 있는 것이다. 함(函)을 의미하는 오른쪽 반원[ )]에다 뚜껑을 의미하는 왼쪽 반원을 씌워서 원만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이대는 파옥멱계상(把玉覓契相) 대 모(某)[원상 안에 某字가 있다]이다. 원상[○]은 옥(玉)을 가지고 서로 계합하는 것을 찾는 모습이다. 누가 이 원상의 뜻을 물으면 원상 안에다 아무 글자나 써준다는 것이다.

제삼대는 조입색속상(釣入索續相)[원상 안에 厶字가 있다] 대 원상[○]이다. 이것은 낚싯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찾는 모습으로 정법안장을 계승할 후계자를 찾는 모습을 나타낸다.

제사대는 이성보기상(已成寶器相)[원상 안에 佛字가 있다] 대 토(土)[원상 안에 土字가 있다]의 상이다. 이것은 이미 보배그릇 곧 깨달음을 성취한 것인데 대지와 같이 모든 공덕과 자비를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제오대는 현인지상(玄印旨相)[원상 안에 土字가 있다] 대 무상(無相)[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다. 이것은 심오한 종지를 성취한 것인데, 이후에는 모든 형상을 초월하여 다시는 일체의 교의에 구속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2) 이처럼 순지는 사대팔상(四對八相) · 양대사상(兩對四相) · 사대오상(四對五相)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납자에게 빠르고 더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이라는 법어로써 자세하게 풀이하였다. 삼편의 첫째는 증리성불(證理成佛, 體性)이고, 둘째는 행만성불(行滿成佛, 果德)이며, 셋째는 시현성불(示顯成佛, 敎化)이다.

증리성불은 선지식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자기의 마음은 본래의 일불도 없음을 활짝 깨닫는 성불이다. 만행을 차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리성불이라고 말한다.

행만성불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하고 다시 보현의 행원을 따라 보살도를 널리 닦아서 수행을 고루 갖추고 지혜와 자비를 원만성취하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고 말한다.

시현성불은 증리성불과 행만성불로 마치고서 중생제도를 위하여 시현하는 것인데, 마치 석가모니의 팔상성도(八相成道)와 같다.

(3) 이상은 표상현법으로 교화하는 방식에서 이론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하 첫째 돈증실제(頓證實際), 둘째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 셋째 점증실제(漸證實際)는 표상현법이 실천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돈증실제는 실제 곧 깨달음을 돈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견성 이후 교화행을 펼칠 때 일체의 번뇌를 초월해 있는 보습에 해당하는 출전보현(出纏普賢), 일체중생과 동류대비(同類大悲)하는 입전보현(入纏普賢), 출전보현의 대지(大智)와 입전보현의 대비(大悲)에 머물지 않고 수연방편을 실천하는 과후보현(果後普賢)이 있다. 이들 세 가지 보현은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 차원의 보현으로 나눈 것이다.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는 방편수행인데,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사대팔상(四對八相) 가운데 삼승구공상(三乘求空相)에 해당한다. 방편의 점교로써 삼승의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점증실제(漸證實際)는 점교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인데, 수행 이후에 깨치는 것이다.

이처럼 순지가 보여준 사대팔상 · 양대사상 · 사대오상의 표상현법이 이론의 측면으로는 삼편성불론으로 제시되었고, 실천의 측면으로는 삼증실제편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순지의 표상현법은 선법을 이해시키려는 방식으로 표상현법을 제시하면서 그 이론적인 근거로 화엄사상을 빌려온 것이다. 특히 삼증실제설은 화엄사상을 선종의 입장에서 깨친 이후에 실천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사상의 중심 문제는 돈오한 이후에도 납자가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근기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동귀일미(同歸一味)의 시절에 도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삼편성불론에서 선인(仙人)과 은사(隱士)의 문답으로 선리를 이끌어 가면서도 서로 걸림이 없는 교리의 전개는 한국 선종사에서 보여준 대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동국대 HK교수〉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불기 2565년 건학75주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인격 완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광동고등학교 교장 이천기
의정부광동고 교장 김석희
광 동 중 학 교 교장 김중철
법인사무국장 정용수
수 석 교 법 사 권준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법인사무국 : 031-572-0559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⑧ 〈오백나한도〉 속 두 스님은?



▶ 한줄 요약
일본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내에는 다양한 나한 도상이 있다. 이중 토굴에서 수행하는 나한과 구렁이와 함께 있는 나한은 각각 자장 스님과 사복 스님으로 추정된다.

오백나한 중 자장·사복도 있었네

지난 연재 〈오백나한도〉의 글에서, 화면 정중앙 삼존불 위에 눈에 띄게 위치한 스님이 '원효대사' 임을 논한 바 있다. 붉은 의자에 앉은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그를 보위하는 나한 여덟 명이 빙 둘러 있다. 따로 이 같은 무리의 단위로 구획을 형성하고 있어서 작품 속의 원효 대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효 대사만큼이나 또 눈에 뜨이게 별도의 구획으로 그려진 스님이 두 분 더 계시다고 지난 연재에 언급한 바 있다. 잠시 지난 연재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원효) 대사의 모습이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속에 있다니! 삼존불 바로 위의 정 중앙에 원효 대사가 있고, 그 주변 좌우로 따로 구획되어 그려진 스님이 두 분이 더 계시다. 한 분은 토굴에서 홀로 명상에 잠겨있고, 나머지 한 분은 육환장을 들고 거대한 구렁이를 좌복 삼아 앉아 계신데, 아직 어떤 유명한 선사인지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인터넷 댓글이 게재됐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했다. 내용은 "혹시 토굴 명상은 자장 스님, 구렁이 위에서 참선은 사복이 아닐까요"였다. 매우 놀라운 추론이라고 판단됐다. 다시 한 번 〈오백나한도〉에서 지명된 두 스님이 누구인지 열린 토론을 하기 위해 두 스님의 모습을 공개한다.(그림1, 그림2) 과연 이 두 분이 어떤 스님일지, 이하 함께 추론해 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추론이기에, 허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거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조금이라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른 나한들도 우글우글 많은데, 왜 이들 두 분에게 주목하는가? 이 같은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겠다. 원효 대사로 추론한 스님은, 이미 위에 언급했듯이, 무수한 나한들을 보다가 보면, 크기도 그렇거니와 위치에 있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중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면에서 작품을 보았을 때, 한 가운데의 삼존불 다음으로 눈에 띄도록 신중하게 구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선은 바로 위의 토굴 속에 눈을 내리 깔고 앉아 있는 스님에게로 옮겨 간다. 여타 나한님들은 무리를 지어 나타내어 하나의 군상을 이루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 토굴 속 존자와 구렁이 좌복 존자는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도 구렁이 존자는 그 묘사된 크기와 비중에 있어, 거의 원효 대사와 비등할 정도로, 멀리서 보아도 눈에 확 띄게 그려졌다. 물론 가운데 삼존불 하단 쪽으로, 하반신에 불을 일으키는 스님도 보이고, 붉은 가사에 이국적인 털북숭이 스님도 눈에 뜨인다. 하지만, 딱히 이분들을 크게 그리거나 별도의 구획을 지어 강조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여타 신통을 부리고 일상을 소일하는 나한들과 비중이 비슷비슷하다. 그렇기에 작품을 보고 있자면, 자연히 이들 무수한 오백나한들 위로 떠오르는 세 명이 있는데, 그들이 원효 대사를 비롯한 상기 언급한 두 명이다.



그림①

그림① 일본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에 그려진 '토굴 속의 나한'의 모습. 자장 율사로 추정된다.

그림② 〈오백나한도〉의 부분. 구렁이와 동심일체로 육환장을 든 나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신라 십성으로 추앙받는 사복으로 보인다.



그림②

日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토굴, 뱀 관련 나한들 '눈길'
자장·사복 스님으로 추정돼

통도사 자장 진영과 유사해
사복 스님도 원효와 연관돼

〈삼국유사〉 속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은 단연 원효, 의상, 자장 스님이다. 그 외 원광, 도의, 도선 스님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리고 금산사와 동화사 관련하여 진표 스님도 물망에 오를 수 있겠다. 토굴 속 스님이 의상 스님이 아닌가도 추론을 해 보았다. 원효 대사와 일단 거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둘은 죽마고우로 당 유학길에 같이 오른 인연이다. 그러면 토굴은 낙산사의 관음굴이 되지 않을까? 또 입고 있는 옷도 다른 소탈한 나한들의 의복에 비해 매우 화려하다. 가사에 자색 테두리를 둘렀고, 테두리 속은 금박 또는 금실의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푸른 풀방석 위에 앉아 계신다. 한 눈에 지체 높은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존상이 의상 스님임을 나타내려면 좀 더 그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추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예를 들면, 백화도량을 상징하는 백화라든가 관세음보살의 암시로 등장하는 파랑새 등. '토굴을 과연 관음굴로 볼 수 있을까', '의상 스님이라면 좀 더 하얀 피부에 곱상한 귀족미가 물씬 나게 그렸을 텐데'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쯤, 댓글 작성자인 정진원 교수의 말대로 '자장 스님이 아닐까' 라는 의견에 귀가 기울여 진다.

통도사 소장 자장 율사의 진영의 얼굴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근엄하고 후덕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성상이다. 고려 시대 〈삼국유사〉가 집필되고, 이 〈오백나한도〉가 그려졌을 당시, 불교계의 인식을 한 번 들여다보자. 그 당시 관점으로, 지난 시대를 대표한, 불교에 크게 기여한, 또 우리가 계승해야할 기라성 같은 스님을 꼽자면 물론 자장 스님을 빼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라의 최고 보물을 자장 율사가 가지고 온 진신사리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진신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금강계단과 통도사가 조성되었다. 이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진신이 있는 불교 종주국이 된 것이겠다. 자장은 진골 출신의 귀족이었고, 대국통을 지냈으며, 황룡사 9층탑을 조성한 선지식이다. 금강계단 이후, 전국 각처에 10여 개의 탑을 조성하였고, 당 연호의 사용을 건의하여 동아시아 질서 속에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다음으로 (정면에서 보아)원효 대사의 오른쪽, 원효 대사만큼이나 크게 그려진 구렁이 스님을 보도록 하자. 정진원 교수는 이 스님이 '사복이 아닐까' 했는데, 커다란 구렁이와 일심동체된 모습으로 있으니, 뱀 '사(蛇)' 자에 복 '복(福)' 자를 쓰는 사복이 연상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 신라 십성의 한 명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사복에 관한 〈삼국유사〉의 글을 인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 만선북리에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열두 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여 이름을 사복이라 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죽자 고선사(高仙寺)로 원효(元曉)를 찾아가서 "그대와 내가 옛날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같이 가서 장사지내자"고 청하였다. 이에 함께 집으로 돌아와 포살(布薩)을 하고 수계(授戒)하였다. 원효는 시체 앞에서 축원하기를 "나지를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아라, 나는 것이 괴롭다(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라고 하였다. 사복이 그 말이 너무 길다고 하자 원효는 다시 "생사가 모두 괴롭구나"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상여를 메고 활리산(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가서 장사를 지냈다. 사복은 게(偈)를 지어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한다(往昔釋迦牟尼佛, 婆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 欲入蓮花藏界寬)"고 하고 풀뿌리를 뽑으니 그 속에 명랑한 세계 칠보 장엄 누각이 있어 인간계가 아니었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니 땅이 오므라졌다.

이상, 글 속의 대화에서 사복이 원효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효가 장황하게 말하자 이를 수정해 주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그대와 내가 옛날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같이 가서 장사지내자"라는 사복의 청에, 원효가 스승처럼 섬겼다는 대안 스님이 바로 연상된다. 원효 대사는 〈금강삼매경론〉을 소를 타고 가다는 도중 내리지도 않고, 소의 두 뿔 사이에서 집필했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때 〈금강삼매경〉과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바로 대안 스님이다. 그러면 사복의 전생은 대안 스님이고, 돌아가신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원효가 탔던 암소인가? 이런 저런 추론은 다시 원점을 맴돈다. 구렁이를 깔고 앉아 육환장을 들고 있는 스님은 과연 누구일까?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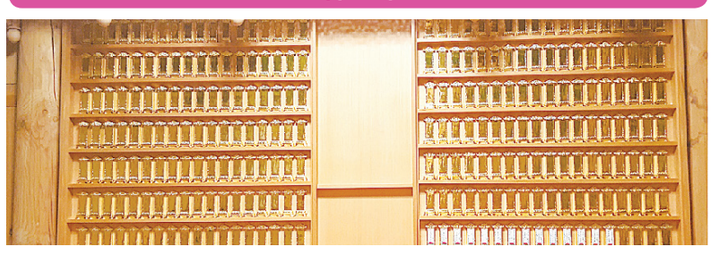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박원자의 母情佛心 ❽ 황벽 선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황벽 희운 선사는 임제, 배휴 등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선지식이다. 그의 명성을 들었던 모친은 선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고 했으나 선사는 매정하게 모친을 내쳤다. 이는 자녀에 대한 사랑마저 허망함을 알게 하기 위한 선사의 법문이었다.

"내 어머니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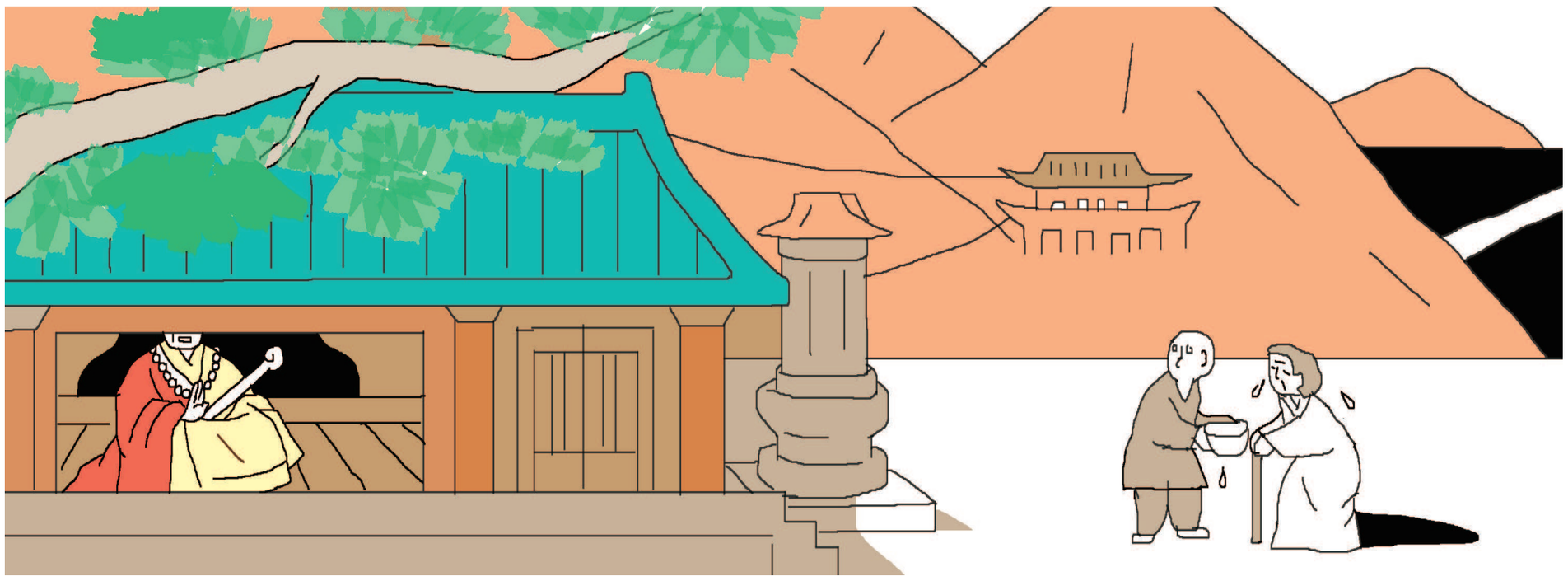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얼마 전 출가한 지 반세(半世)를 훌쩍 넘기신 한 노스님께 여쭈었다. "출가란 뭘까요?"

스님께서 답하셨다. "출가란 내가 머물던 작은 집을 나와 우주를 내 집으로 삼아 사는 길이지요."

우주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짐작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것을 경험한 노스님의 내면세계가 진심으로 부러웠다. 그런데 자식이 선택한 출가의 길이 이렇게 자유로운 길임을 눈물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들은 알까?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어머니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날 노스님께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다가 잠시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어머니께서 아흔 살이 넘어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란다. "네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 매일 동네 버스정류장에 나가 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렸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상상해본다. 온다 간다 말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행여 돌아올까 막차 시간까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젊은 어머니를. 그 젊은 어머니가 아흔 살이 넘어 비로소 '네가 돌아오지 않아 그토록 매일 기다렸다' 고 고백하는 장면을.

어머니는 그런 존재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가슴 저려도 자식이 선택한 삶을 응원하며 입을 다문다. 너의 삶이 옳다 그르다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관세음보살로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이 분별하는 한 생각이 비어있음을 깨달은 보살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을 한탄하지 않는다. 다가올 미래에도 두려움이 없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에 화려한 현재를 산다. 관세음보살이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따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걸 감으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머니 아닌가 싶다.

나의 어머니는 시골의 어느 작은 절의 신도 회장을 지내셨다. 불사를 한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서서 권선을 하고 아버지를 앞세워 시주도 적지 않게 했다.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 따라갔다. 수십 년 전 젊었을 때다. '삼귀의' 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진행되고 있었다. 잠깐 실수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도 보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법명을 여쭤보니 없다고 했다. 그러니 〈반야심경〉을 외울 리 없었다. 뜻은 더더군다나 모르셨을 것이다. 절에서 기본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지금은 절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엔 어머니와 같은 신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은 〈반야심경〉의 뜻을 몰랐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이 더 관세음보살로 사셨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초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전을 읽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보살이 아니었나 싶다. 일생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웠지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어머니도 자유롭고 자식도 자유롭다. 어머니가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식도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

불가에서는 황벽 선사가 그의 어머니를 매정하게 대해 제도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해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한 후 부모님과 절연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애착을 끊는 것이 도의 시작임을 가르치려했던 것일 테지만, 세속 사람들에겐 출가의 길이 그처럼 비정한 길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황벽 희운(?~850) 선사는 당나라 백장 회해 스님의 제자다. 복주 민현 사람으로 홍주 황벽산으로 출가해 득도했다. 임제, 배휴 등 훌륭한 제자를 두었다. 당시 재상을 지낸 배휴는 황벽 선사의 법문집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불자들이 애독하는 〈전심법요〉가 그 책이다. 그의 제자 임제 선사가 나와 임제종을 열었으니 황벽 선사는 임제종의 새벽을 연 원조인 셈이다. 〈전심법요〉에서 그는 이렇게 설했다.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본래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애착을 놓은 그 무심의 자리가 곧 자유라는 것이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고 본래 마음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한 것이리라.

중국선종의 10대 조사 황벽 희운
모친 찾아와도 매정하게 내치며
자녀 사랑마저 허망함을 가르쳐

뛰어난 도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
선사 아들 가르침으로 극락 왕생

황벽 스님의 출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황벽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지아비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는 반색했다. 아들이 서역에서 온 법을 배우겠다고 하니 신학문을 배운 뒤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두말없이 허락했다. 그런데 아들은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오리라 여기며 기다렸다. 인고의 삶을 사는 데 명수들인 어머니 아닌가. 그러던 중 소문이 들려왔다. 아들이 훌륭한 스님이 되어 황벽산의 어느 절에서 수천 명의 스님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이야기였다.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살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어머니가 살던 복주에서 아들이 있는 홍주까지는 천오백 리의 먼 길이었다. 몇 달 동안을 걷고 걸어 아들이 있는 절 문 앞에 이르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무소를 먼저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전갈을 받은 황벽 선사는 만나주기는커녕 시자에게 일렀다. "내 어머니이지만 쌀 한 톨 물 한 모금 드리지 말고 돌려보내라."

인정이 남아있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불가의 가르침을 자신부터 철저히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후학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먼 길을 걸어 한 산중의 지도자가 된 아들을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일설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민가에 방을 얻어 놓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이 이야기를 가장 실감나게 마치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해주신 분은 해인사 방장을 지내신 법전 스님이다),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려고 강가에 이르렀다가 하도 배가 고파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황벽 선사가 듣고 어머니를 화장해 드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올렸다고 한다.

나는 것도 본래 남이 없고
멸하는 것도 본래 멸함이 없도다
생멸이 본래 비었으니
본래면목의 실상은 항상 머물러 있도다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가 모를 리 없다. 이 게송을 듣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다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들의 꿈에 나타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었다면 다겁생으로 내려오던 모자지간의 정을 끊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쫓겨나올 때 그 끈질기게 남아있던 마음 속 정이 다 끊겼다. 그 공덕으로 이제 천상으로 가니 너의 은혜는 말할 수 없구나."

황벽 선사가 매정하게 어머니를 대해 어머니를 제도한 이야기는 그 후 수많은 스님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손자의 안부가 궁금해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멀리 암자로 숨어버리기를 수차례, 결국 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모님이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습을 보고도 이웃 암자에 꼭꼭 숨어 나오지 않았다는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도 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 출가한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며 절에 전화를 놓아드리면 안되겠느냐고 문의한 어머니도 있었다.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해 선악을 짓게 되면, 허망하게 윤회의 수고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한 마디 말에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

황벽 선사의 말이다. 어머니를 왜 그리 매정하게 대했는지, 출가자의 효도는 진정 무엇인지를 대변해주는 말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존재 자체로 관세음보살이지만 황벽 선사 어머니의 경우는 도인이 된 자식으로 인해 관세음보살이 된 경우가 아닐까 싶다.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자비심과 인욕 갖춘 자가 법화설자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⑮ 법화경 설법지침

"약왕이여,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가 열반에 든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자는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의 방에 들어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 앉아야 비로소 그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여래의 방이란 온갖 중생을 감싸는 큰 자비심이며,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게 인욕하는 마음이며, 여래의 자리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니, 이 속에 안주하고 난 다음에 게으름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 이 법화의 가르침을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약왕이여, 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조화를 부려 만든 사람을 보내 그를 위해 청중을 모으며, 또 조화를 부려 만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를 보내 그가 설하는 법을 듣게 하리니, 이 모든 조화를 부려 만든 사람의 법을 듣고 믿어 받들어 따르고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설법하는 자가 사람이 없는 한가한 데 있을 때는 내 널리 천인과 용과 귀신과 건달바와 아수라 등을 보내 그가 설하는 법을 듣게 할 것이니라. 내 다른 나라 있으면서도 때때로 법 설하는 자로 하여금 내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약 이 경의 글자와 글귀를 잊었을 적에는 내 또한 그를 위해 설해 주어 완전히 기억하게 하리다."

〈법사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은 〈법화경〉을 설하는 자세와 정신에 대하여 설해 놓은 내용이다. 경전에서 경전을 설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점이 특이하다. 먼저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야'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는 말이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물론 뒤에 설명하듯이 상징적인 말이지만 불법을 설하는 근본 태도를 밝힌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생을 감싸는 큰 자비심을 여래의 방이라 하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욕하는 것이 여래의 옷이라 하였다. 자비의 방에 들어와 인욕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 여래의 자리라 하였다. 이 방과 옷과 자리, 세 가지를 갖춰야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는 것은 자비와 인욕, 공(空)이 설법의 요건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몸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자비가 들어 있는 사람이라야 '법화설자(法華說者)'가 될 수 있고, 남에게 부드럽고 인욕할 수 있는 근기가 되어야 하며, 제법이 공한 이치를 알고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는 부처님 열반 후의 설법지침이다. 이 대목에서 '자실인의(慈室忍衣)' 혹은 '인의자실(忍衣慈室)'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아내기도 하였다. 이는 또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인품의 덕목이기도 하다.

이 〈법사품〉에서는 또 오종법사(五種法師)을 설한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受持), 읽고(讀), 외우고(誦), 해설(解說)하고, 서사(書寫)하는 다섯 가지 법화행자의 실천행을 밝히고 이로써 〈법화경〉을 유통할 것을 은근히 부촉하고 있다.

〈화엄경〉처럼 〈법화경〉도 설한 곳(處)과 법회 수(會)를 구분해 말하기도 하였다. 80권 58만7000여 자의 〈화엄경〉의 7처9회에 비해 7권 6만9000여 자인 〈법화경〉은 2처3회 설법이라 하였다. 2처란 영축산과 허공을 말한다. 3회란 영축산에서 허공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영축산, 허공, 영축산을 말한다. 3회로 나눌 때 '서품' 부터 '10품 법사품' 까지가 영산회이고 '11품 견보탑품' 부터 '22품 촉루품' 까지가 허공회이다. 그리고 후영산회는 '23품 약왕보살본사품' 부터 '28품 보현보살권발품' 까지이다. 이렇게 〈법화경〉의 구조를 각 품을 구분해 보아온 관례가 있었다.

당나라 때 승상(僧祥)이 지은 〈법화전기(法華傳記)〉가 있다. 이 책에는 〈법화경〉의 유래와 전역(傳譯), 영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용수(龍樹)와 세친(世親), 견의(堅意) 등에 의하여 이미 강술되고, '제바달다품'을 제외한 〈법화경〉의 27품이 용수 이전 1세기경에서 150년 사이에 성립되고 '제바달다품'은 3세기 전반에 추가되어 28품으로 이루어졌다 하였다. 구마라습이 406년에 번역한 〈법화경〉이 용수가 지은 〈대지도론〉에 인용되고 견의가 지은 〈입대승론〉에도 인용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로서 살기 위한 실천과 마음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⑮ 대승불교의 계율

부파불교 시대의 칠중계(七衆戒)는 재가자보다는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독신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라한(阿羅漢)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시 말해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가자, 특히 비구와 비구니의 삶이 적합하다고 여긴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아비달마(阿毘達磨) 교학의 연찬과 금계(禁戒)의 준수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파 교단은 여러 차례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본래 목표를 망각한 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수행자를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또는 소승(小乘)으로 비판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된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승(大乘)으로 표방한 이들은 불타(佛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살(菩薩),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여겼다.

대승불교 이전의 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전생을 가리켰으며, 불전문학에서 본생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서원을 세웠던 존재로 묘사되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보리심(菩提心)에 근거한 이타(利他)의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자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대승 경전에는 여러 보살의 삶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승불교의 계율인 대승계(大乘戒)는 대승의 보살에게 적합한 계율이므로 보살계(菩薩戒)로 불린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후나야마 도루(船山 徹)는 보살계를 '대승의 이상상(理想像)인 보살로서 살기 위한 실천 항목과 마음 자세를 체계화한 대승의 독자적인 계율'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보살계는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이 대승 경전에 나오는 보살처럼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에 필요한 행위 규범이다. 따라서 대승의 보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대승 경전에 설해진 보살계를 찬찬히 뜯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승경전은 한꺼번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대승불교도에 의해 제작되었다. 대승경전은 성립 순서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며, 초기 대승경전과 중기 대승경전은 교리나 실천면에서 후기 대승경전보다 중요하다. 초기 대승경전은 최초기의 대승경전에서 용수(龍樹)의 시대까지 제작된 경전이며, 중기 대승경전은 용수 이후 무착(無著)과 세친(世親)의 시대까지 제작된 경전이다. 초기 대승경전으로는 〈반야경(般若經)〉 계통의 경전, 〈화엄경〉, 〈법화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기 대승경전으로는 〈열반경〉을 비롯한 여래장 계통의 경전과 〈해심밀경〉을 비롯한 유식(唯識) 계통의 경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살계도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다소 소박한 형태이었지만, 중기 대승경전에서는 정교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특히 중기 이후에는 유식 계통의 경론에 설해진 삼취정계(三聚淨戒)가 보살계로 정착하게 된다. 이런 흐름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어져서 5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보살지지경〉, 〈보살선계경〉, 〈유가사지론〉 등이 한역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새로운 경전인 〈범망경(梵網經)〉이 5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는데, 이 경전의 하권에 나오는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가 범망계(梵網戒)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보살계는 범망계로 인식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⑮ 고대 인도의 교통로

교통로 발달, 장자들 보시 촉진

석가모니 시대에도 육로와 해상로를 통해 국제적인 무역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지역의 간선도로는 수시로 지워지고 새로 생겨나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수한 길 끝에는 항구가 있거나 도시의 관문 또는 사원이나 순례지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먼저 당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장거리 루트를 고려해보자. 장거리 교통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북쪽 인더스 강과 동쪽 갠지스 강을 통해 육지에서 해상으로 빠져나간다. 서쪽에서는 인더스 강을 따라 내려가서 현재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었을 항구 바바리콘(Barbaricon)에서 배를 타고 아라비안 해로 나간 후, 근해안의 항로를 따라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해양길이 있었다. 동쪽 갠지스 강을 타게 되면, 동쪽 벵골만의 땀라립띠(Tāmraliptī) 항구에서 장거리 선박으로 갈아탄 후 아마라바띠(Amarāvatī)와 퐁디체리를 거쳐 내려간다. 그 후, 케이프 꼬모린(Cape comorin)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홍해로 들어가던 해양길이 있었다. 이 두 해양 루트는 불교 이전부터 잘 발달된 무역루트였다. 특히 페르시아만의 해상로는 인더스 문명기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무역선이 이동하던 해상로인데 지금의 두바이와 소말리아 등지에서 인더스 인장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선은 바레인을 거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로 들어가 우르(Ur)나 니뿌르(Nippur) 등과 같은 도시에 인더스만의 특산물, 상아, 티크, 홍옥수,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애호했던 라피스라줄리 등을 떨궈주고 돌아왔을 것이다.

육로는 크게 북방루트와 남방루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방루트는 탁실라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테헤란을 거쳐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해당하는 셀레우키아(Celeucia)를 거친 후 다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르는 육로를 고려해볼 수 있다.

탁실라의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르칸드나 카쉬카르를 거쳐 잘 알려진 실크로드를 사막길을 따라 장안까지 걸어가야 했을 것이다. 남방루트는 탁실라에서 마투라까지 열린 남북연결로를 이용한다. 여기서 마투라는 남서쪽의 웃자인(Ujjayinī)과 남동쪽의 꼬삼비(Kośāmbī)와 연결되면서 인도 본토 무역로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게 된다. 웃자인에서 더 서쪽으로 내달리면 항구도시 바리가자(Barigaza) 즉 지금의 구자라트 주에 있는 바루치(Baruch)에 도착한다. 여기서 배를 타면 페르시아만이나 홍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바바리콘과 바루치는 서방의 이국을 향해 출발하는 중요한 항구도시였다. 반대로 웃자인에서 동쪽길을 따라 가면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 꼬삼비가 있는데, 코삼비는 다시 동쪽의 도시 파탈리뿌뜨라와 연결된다.

이 동서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웃자인-꼬삼비-파탈리뿌뜨라의 교통로는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도시의 발전과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장자들의 보시가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일으켰던 신흥계급의 주역들이 불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운동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에 그려진 바와 같이, 꼬삼비에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원들이 모여 있었다. 예를 들어 그 도시의 유명한 장자들의 이름을 딴 꾹꾸따(Kukkuta) 사원이나 고시따(ghosita)사원, 빠바리까(Pāvārika) 사원 등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통로 위에 놓여진 쁘라야그(Prayag, 현대의 알라하바드)와 파탈리뿌뜨라도 중요한 불교중심지였다. 파탈리뿌뜨라는 다시 동쪽으로 뻗어나간 길을 따라 벵골만의 항구도시 땀라립띠와 만나고 바다로 이어진다. 그러나 쁘라야그나 파탈리뿌뜨라는 석가모니 당시 허름한 촌락(grāma)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촌락은 아마도 마우리야 왕조에 이르러 크게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길 위에 놓인 도시들은 쉽사리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장소를 연결하는 길은 이름 없이 훨씬 더 오랜 흔적을 남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7호 | 17 | 전면광고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요,
악한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착함과 지혜라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초빙 동참 안내
지역에 법인지사 설치시 법인 주지사 임명
지역에 사암 등록시 주지 임명
수행승 자격·신분증 부여
세무서 법인번호 등록, 법원 등기 관 등록
불교문화법인
대표법사장 법광 종법주
서울시 노원우제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커피황토집짓기 영업사원모집
기능성 황토벽돌 집 커피전문상가, 숯황토벽돌 맥반석황토벽돌, 한방황토벽돌 홍송나무황토벽돌, 편백황토벽돌 해송황토벽돌, 35%착수금 나머지는 20년분납 0.3%이자
한식과학원 043-745-3332
영동군용산면율리길155-28

사주·구성학·명리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주(구성학 · 명리)
1대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
찻집·카페하실 보살님 !
대전 010-5257-9731스님

명 상 쉼 터
30,000여평의 수려한 계곡 자연경관, 심산의 질 좋은 식수, 공기, 황토방 생활, 명상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하여 지내실 몇몇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802-7102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내 마음대로 되는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男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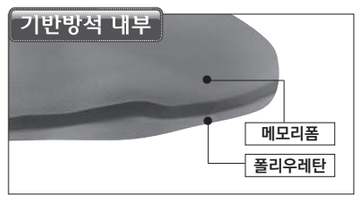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7호 | 18 | 전면광고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이미 법과 진리를 구해서 얻었다면 안락함을 누리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별역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3억

◎위치 : 경북
◎대지 : 150평
◎건평 : 80평
◎시내, 생활편리
◎매가 : 7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 가액 : 39억
-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 불교컨벤션 ● 명상힐링캠프 ● 불교복지시설 ●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 가액 : 1억

010-4156-3779

오래된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종교용지 등기 912평(약 1천평)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기와 단청, 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 은행 1억5천 안고 2억5천만 합 4억
-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지역
- 법회 보고 상담하기 제일 좋은 암자
- 빌라 반지하 몽땅 8천7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1-433-8130

토굴 · 토지 구함

- 정업수행을 하는 비구승입니다.
-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토굴이나 토굴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010-7678-5536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앞
- 규모 : 대지 264.5㎡ (80평), 연면적 762.99㎡ (231평) 제2종지역, 대리석 건물, 점포 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주인세대 : 156.05㎡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 거실, 건물수리 완료
- 3층 포교원 : 156.05㎡ (47평) 최신 불단 조성, 종무소큰방, 스님 방, 실내 남녀 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양도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상가수입, 주차장 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우암산 전망 최고), 주변 대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생활편리.
- 급매가격 : 7억 5천 만원 * 금융융자 3억 5천 만원, 상가보증금 5천 만원

연락처 010-9011-7230 (중개 가능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 부지 : 53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 1평
- 가액 : 2억(절충)

010-9656-0108

전원주택 안내

(암자도 가능)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52-1
- 대지 191평, 전원주택 30평
- 황토방 5평, 창고 10평
- 태양광, 마당주차 5대
- 가액 2억 7천만원

010-3882-289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한옥마을 인근 완산칠봉 이성계 기도터 ● 1000평, 요사채, 극락전 신축, 석불 1억5천 시설 ● 전주시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부귀발복터 ● 가액 2억(대출금 3억5천 별도)
- 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 청자박물관 감불산 ● 5만평, 천혜의 자연계곡, 폭포, 암반, 금강송 둘레 1m50cm이상 100년송 수만그루 ● 풍수대명당 부귀발복터 ● 가액 3억5천만원

010-9647-0723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5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눈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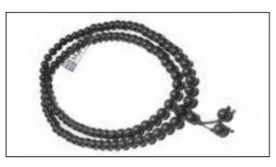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태장만다라, 〈지명원〉



지명원은 태장만다라 12대원의 제5원으로서 5존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중대팔엽원의 서쪽에 위치한다. 밀교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대일여래가 보살이나 명왕으로 변화하여 구제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일여래자체를 말할 때는 자성륜신(自性輪身)이라 하고, 반야보살처럼 보살로 변화했을 때는 정법륜신(正法輪身)이라 하며, 부동명왕의 분노하는 모습으로는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위해 진노하는 모습을 띠고 교화하는 것을 교령륜신(敎令輪身)이라 하는데 교령륜신으로서 제도하는 대상은 대자재천왕과 같은 교화가 어려운 중생이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⑧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정상석 시인

손가락 시인과 그의 파랑새, 부처님

누군가 행복이 뭐냐고, 슬픔이 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을 할까? 당신의 파랑새는 무엇이며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나의 파랑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까? 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처럼 답이 머뭇거려지는 질문은 없을 것이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정상석 시인에게 시는 행복이며 슬픔이다. 그리고 그에게 파랑새는 부처님이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하는 파랑새가 아니라 그의 눈길이 닿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날아드는 삶 안의 파랑새이다.

정 시인은 2017년 부처님오신날에 불자 대상을 받은 신심 깊은 불자다. 불교텔레비전을 통해 날마다 예불을 보는 것은 물론 어머니와 함께 꾸준한 신행생활을 해오고 있다.

손가락 시인으로 불리는 정 시인은 선천성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TV광고를 보면서 혼자 한글을 깨우쳤다. 그러나 경직된 팔과 손가락을 움직여 힘겹게 컴퓨터 자판과 사투를 벌이듯 써가는 시 속에는 세상을 향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다.

옆으로 누워 자판 하나를 치려면 온몸이 경직되고 땀범벅이 되지만 자판의 자음과 모음이 단어가 되고 단어와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어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시들을 모아 2003년 첫 시집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을 출간하게 되었고 8년 만인 2010년 두 번째 시집 〈아침 강가에서〉를 출간했다. 1000여 편의 시에서 고른 이 시들은 자신의 기쁨보다도 더 많은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맘이 컸다.

근래에는 보리수아래의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에 참여하여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불교국가 장애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고 있다.

정 시인 곁에는 관세음보살 같은 어머니가 늘 그림자처럼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정 시인을 집에 홀로 둔 채 일을 나가야 했던 어머니 김종갑(여법성)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아들이 시를 쓰는 일과 소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2000년 정 시인에게 중고컴퓨터를 마련해 주었었다.

어머니는 컴퓨터를 마련해 준 지 얼마 안 되었던 때 있었던 일화를 눈물 글썽이며 들려주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일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 서둘러 돌아왔더니 "어어어엄마...어어엄마..." 숨이 넘어갈 듯 자신을 찾는 정 시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방문을 여니 컴퓨터 앞에 엎드린 정 시인이 모니터에 '엄마 사랑해'라는 글을 써놓고 환히 웃고 있었다고 한다. '니가 쓴 거니 정말?' 하면서 다시 써보라고 했더니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자판을 치는지,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들을 껴안고 한참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정상석 시인(아래)과 그의 어머니.

넉넉지 않은 집에서 중증장애자녀를 키우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장애자녀를 두고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어려운 형편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다. 중증장애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나가야만 했으니 정 시인의 '엄마 사랑해' 문구는 어머니로 하여금 만감이 교차하게 했을 것이다.

정 시인은 사이버장애인자립생활 인터넷 카페 `푸른내일' 운영자와 강원도장애인복지관 홀로서기 프로그램의 리더로도 활동했다.

나는 2010년 내가 기획홍보팀장으로 있었던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정 시인을 추천했고, 그 때 정 시인은 제28회 오뚜기축제에서 표창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정 시인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극복대상, 춘천시민상을 수상했다.

2011년 1월, 가정 시인은 홀로서기를 했다. 40년 동안 곁에서 손발이 되어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혼자만의 보금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한사코 말리는 어머니 만류에도 독립을 하고보니 어머니가 병원도 맘 편히 가시고 일상이 편해지신 것 같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중에는 불자가 적어 아쉽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최중중장애로 인해 집에서 불교계 방송과 유튜브, SNS를 통해 신행생활을 하는 정 시인의 일상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불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여러 번 들었다. 보리수아래 중증장애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실제 불자이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연결이 된 예도 몇 명이 있다.

몇 년전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 정 시인과 같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의 연결이 어려워져서 삶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특히 주말에는 연결이 더욱 어려워진 정 시인은 걱정이 크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회답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정 시인은 일상생활과 시 작품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일흔 중반의 어머니가 주말에는 다시 자신을 돌보아야 하니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에 안절부절이다. 그 사실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는 터라 걱정의 안부만 묻게 되니 더 안타까울 뿐이다.

최중증장애를 갖고 혼자 사는 삶에 힘든 점이 어찌 한두 개 뿐일까. 말도 못하게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삶의 환경은 어려워지고 건강도 날로 안 좋아지지만 1971년생 정상석 시인은 영원한 파랑새 부처님을 의지하며 산다.

정 시인은 말한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기에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신을 잘 다루라'는 〈법구경〉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곤 한다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는 장애인 주간을 보내면서 정상석 시인을 통해 장애인의 삶, 불교 속의 장애인, 그들의 신행 생활과 포교에 대해 돌아보는 한 주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지구환경도 살리고 살림비용도 절감하는

em 친환경세제 EM 선물세트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 미생물군)의 약자. 일본 류큐 대학의 히가테루오 교수가 개발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

기대 이상의 세척력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로 이뤄진 EM원액(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군)을 발효시키면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세제

종합 사각선물 A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49,000원

종합 사각선물 B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EM쌀뜨물 발효액 / 40,000원

EM스마트 발효기



EM(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쌀뜨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효할 수 있습니다. 200L 발효기(48만원) /120L발효기(40만원) / 30L발효기(32만원) ＊부가세별도



EM원액 : 1박스(1L×15EA) 1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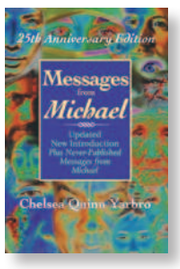
판매처 : 마하몰 02-732-1520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❽ 첼시 퀸 야브로의 '마이클 메시지(Messages from Michael)'



▶ 한줄 요약
성숙된 이들이 늘어날 때 사회 평화 이어져

연기 체득, 영적 깊이 더한다



첼시 퀸 야브로(Chelsea Quinn Yarbro)는…
공상과학, 로맨스, 공포,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80여 소설책을 썼다. 월드 판타지 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수상하고, 인터내셔널 호러 길드로부터 '살아 있는 전설'로 명명됐다.
자신들을 '마이클'이라 지칭하는 한 그룹(a group entity)으로부터 채널링으로 전달받은 〈마이클 메시지(Messages From Michael)〉는 그녀의 저작물 중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윤회 전생을 통해서 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혼의 나이(Soul Age)'를 구분하면서 그 특징을 해설한 〈마이클 메시지〉는 문고판으로 간행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혼의 진화 5단계로 분류
인생 성숙도를 영적 해석
무르익은 혼, 연기 인식

혼의 성숙도 나타내는 '혼의 나이'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공부 모임에서는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한 한 존재(그는 스스로 1,053명의 집단 혼이라고 한다)가 채널링을 통해 나타나 '혼의 나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불교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저절로 떠올리게 만드는 '혼의 나이'는 서구 세계를 뒤흔들고, '마이클학'(혼의 심리학)이라고 불릴 정도인 몇십 권의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도의 세계'(혹은 근원의 자리)에 거주하던 '의식의 빛'이 지구별에 이끌려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부터 '혼'은 나고 죽기를 거듭하면서 혼 자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간다. 그러한 진화의 단계를 미카엘은 아기 혼, 어린 혼, 젊은 혼, 성숙한 혼, 무르익은 혼이라고 부른다.

아기 혼과 어린 혼

도의 세계에서 막 빠져나온 아기 혼(Infant Soul)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처럼 아직 나와 너, 나와 세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따라서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하지 않다. '아기 혼'은 성장해 감에 따라 소위 '머리가 커져서' 자기 영역을 점차 확보하게 되고, '어린 혼'을 거쳐 '젊은 혼'에 이르게 되면 나(에고)에 대한 의식이 절정을 이룬다. 말끝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영토 확장과 관련지어지지 않으면 대화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생존에의 악조건과 싸우느라 '두려움'이 몸에 밴 아기 혼들은, 문명사회에 태어나게 되면 정규적인 일자리를 마다하기 일쑤이고, 기껏해야 단순노동에 만족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히기를 싫어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기 혼들은 생리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교정에서 여러 명에게 총기를 난사한다든가 강도 강간 사건의 많은 경우가 아기 혼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아기 혼들은 사고를 쳐도 영토 확장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외적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폭발된다.

하지만 어린 혼(Baby Soul)으로 성숙한 뒤에는 본격적인 영토 싸움에 빠져든다. 긍정적인 성향이 발달되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양심적인 시민이 되지만, 부정적인 성향이 발달되면 갱단을 조직하여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자 자신의 영향력 확장에 골몰한다. 어린 혼의 철부지 같은 영토 확장의 욕망이 대중의 혼적인 상태와 만나 결탁되면 히틀러나 호메니, 이디 아민 같은 독재자에게 무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독한 레슨비를 지출하게 한다.

젊은 혼과 성숙한 혼

개체적인 독립심이 뚜렷하게 발달된 젊은 혼(Young Soul)은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주요한 삶의 목표가 된다. 아파트 평수가 넓을수록, 좋은 차를 가질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여 저절로 어깨가 올라간다.

"여기에 당신이 있고 내가 있다. 나는 당신을 이길 것이다"는 모토를 갖고 삶에 임하는 젊은 혼들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학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재산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자기 가치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한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부자는 '다 소용없는' 짓이었으며 고작 자식들끼리 유산 다툼이나 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다. 그런 인식은 다음 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아주 많은 참고 자료가 되어준다.

반면 지지리도 못살던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었다면 다음 생에서는 엄청난 일 욕심과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남다른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생을 거듭하면서 따고 잃고 따고 잃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젊은 혼은 돈에 대한 균형감각을 차츰 터득한다. 처음에 딸 때는 그것을 곧 자기 존재 가치의 상승으로 여기고 콧대가 높아져서 우쭐대다가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뼈아픈 존재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돈을 딸 때는 첫 번째 딸 때보다는 그만큼 덜 교만해지고, 이렇게 따고 잃음을 거듭하면서 마침내는 '돈=나'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돈을 마스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의 혼은 어느덧 '성숙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

젊은 혼들의 영토 싸움은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제1,2차 세계대전도 젊은 혼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영토 및 세력 다툼에 다름아니었지만, 인류는 엄청난 희생자 내지는 주역, 조역, 단역 들의 피묻은 활약상을 통해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9.11테러라는 참혹한 사건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3천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건 앞에서 배신감과 증오, 상실감에 온 미국과 세계가 들끓고 있을 때 몇몇 성숙한 혼(Mature Soul)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촛불 집회를 열었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보낸 빛과 사랑의 메시지는 크나큰 공명을 낳아 '테러 방지를 위한 평화 집회'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로 일파만파 번져 나갔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안전'을 모토로 울타리를 높이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으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구촌의 문명은 분명 지칠 줄 모르고 밀어붙이는 '젊은 혼'들의 공이 대단히 크지만, 생산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토양이 황폐화된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젊은 혼들은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의식의 우위를 확신하지 못한다. 성형수술이 인기를 끌고 미용 산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번창한 것은, 젊은 혼들이 그만큼 득세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젊은 혼의 단계를 지나 성숙한 혼(Mature Souls)이 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성숙의 시기를 맞은 그들은 외부의 돈이나 학벌이나 영향력 등과 자기를 동일시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그것들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시작한다. 성숙된 혼들은 젊은 혼들이 꾸려가는 위선과 아첨이 횡행하는 이 사회를 해체하고 싶어한다. 성숙된 혼이었던 고갱은 9시에서 17시까지 이어지는 틀에 박힌 은행원 생활을 벗어던지고 어느 날 갑자기 타이티 섬으로 떠난다.

열정과 생명력으로 무장한 스타들은 대체로 성숙한 혼들로서, 마이클 잭슨,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마이클 더글라스,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인 폰다 등은 '성숙한 혼'으로 꼽힌다.

무르익은 혼

성숙을 넘어 무르익은 혼(Old Souls)이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림은 물론, 작은 세포 하나에 내 몸 전체의 유전자가 기록되어 있듯이, 내 존재가 곧 우주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눈을 번쩍 뜬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무르익은 혼들은, 그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에 대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을 두루 경험해 본 무르익은 혼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늘 유보한다.

무르익은 혼들은 다방면에서 매우 유능하다. 그림 같은 집과 차, 멋진 옷이나 보석이 무르익은 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틀에 박힌 직장 생활도 거부하기 일쑤다. 물질 세상에서의 이런 게으름이 때로는 궁핍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게임이 늘 같은 방식으로만 작동되지는 않는다. 물질계의 법칙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무르익은 혼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아스트롤로지, 우주 철학, 타로 카드나 다른 고대의 가르침에 끌려서 그 방면의 대가가 되기도 한다. 사랑을 강조하는 여러 종교와 가르침들을 탐험하길 즐기기도 한다. 무르익은 혼은 수많은 생을 남성과 여성으로 번갈아 살아보았기 때문에, 두 에너지가 고루 섞여 있어서 성에 대한 정체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무르익은 혼이 가르침에 나설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하다. 그만큼 도약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존 레논과 요코 오노, 스팅, 주디 콜린스 등은 음악을 통해서 지구촌의 잠재의식에 폭포수와도 같은 시원한 충격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폴 윈터, 조지 윈스턴, 기타로 등의 뉴에이지 음악가들도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내면의 눈부신 공간에로 초대한다. '왕자와 거지'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왕자임을 은연중에 깨우쳐 주고자 했던 마크 트웨인도 무르익은 혼에 속하고, 아인슈타인, 셜리 맥클레인, 로버트 레드포드 등도 무르익은 혼들이다. 노스트라다무스, 구르지예프, 칼 융, 라즈니쉬, 람 다스, 묵타난다, 달라이라마 등 성자라 할 만한 여러 무르익은 혼들은, 아직도 어둠에 물들어 있는 지구촌의 의식에 등불 하나씩을 켜들고 그보다 어린 혼들을 향해 밝음으로의 초대장을 띄워 보내는 일을 해왔고, 하고 있다. 〈작가〉

처음 펼쳐보고 밤새워 노래(頌)를 짓다.



백봉 김기추 강송 | 312쪽 | 양장 | 18,000원

"산에서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금강경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대강 보니 굉장한 책이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반야바라밀다니 뭣이니 전혀 몰랐죠.
한데 가만 보니 '대강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게송(偈頌)을 달아봤습니다.
게송을 달기 위해서 단 것도 아닙니다, 재미로 달았습니다.
전부 달고 나니 새벽 4시 15분 전이에요. 그 때 책을 낸다느니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책이란 학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책을 낼 겁니까?"

〈저자, 19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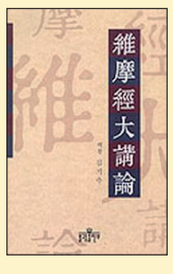
1976년에 출간한 4판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 재 편집

거사 생존시의 최종 판인 1976년판은 한자를 많이 써서 한글세대가 해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한글화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한글세대에게 낯선 어투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바꾸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와 귀를 가리고 가다
백봉 김기추 거사 일대기
최운초 지음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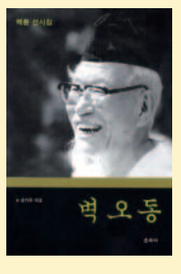
공겁인1, 2
백봉 거사를 모시고 치열하게 수행을 한 제자들의 수행이야기와 백봉 거사와 인연이 깊었던 스님들의 인연 이야기가 들어 있다.
최운초 지음 | 각권 16,000원



유마경 대강론
백봉 김기추 강론
불광출판사 | 18,000원



선문염송 요론
백봉 김기추 지음
비움과소통 | 12,000원



벽오동
백봉 선시집
백봉 김기추 지음
운주사 | 10,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문집
장순용 편저
판미동 | 15,000원

가야행 전화 055-756-6707, 010-7202-1035 팩스 055-762-6708



대행 스님

위로는네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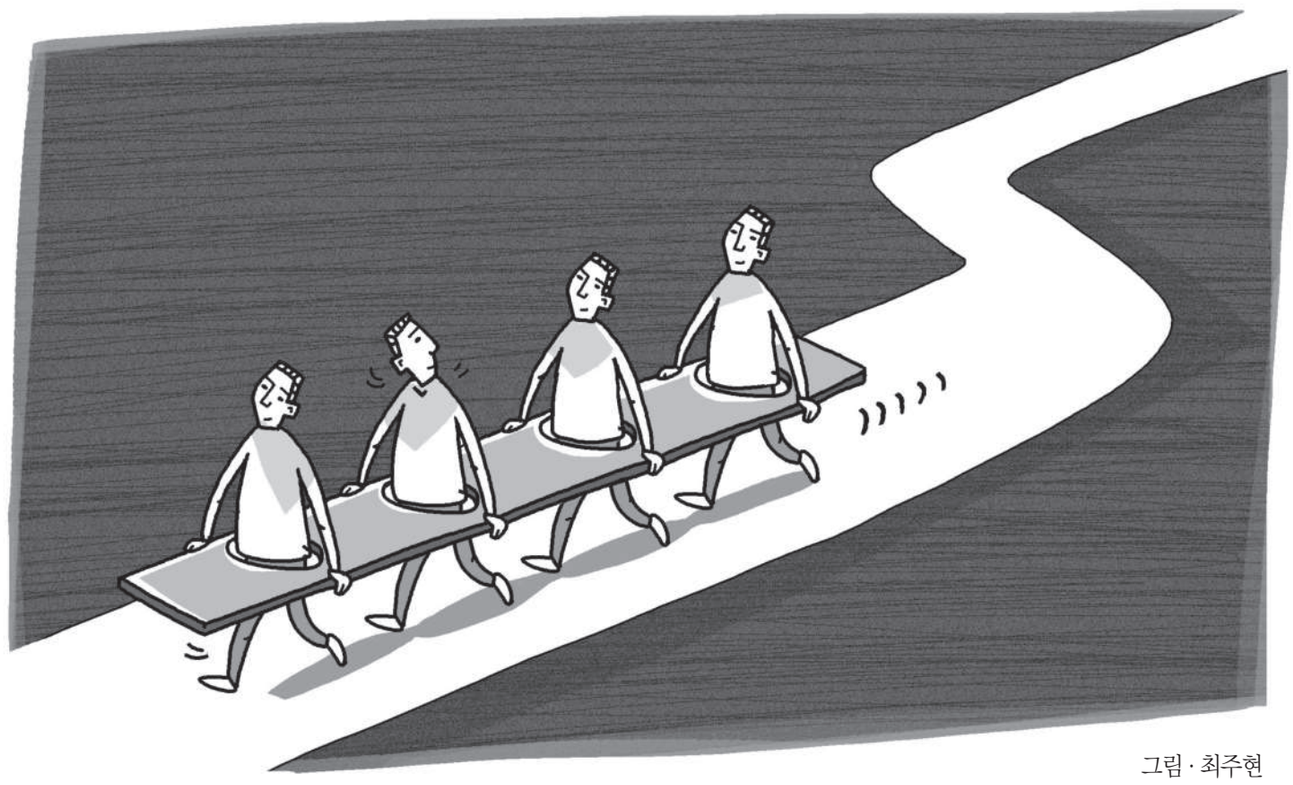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리송하고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태양도 은하계도 다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가 가설이 돼 있어서 그게 한 생각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태양이 새끼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새끼가 어미가 될 수도 있고, 하하하…, 알을 낳을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태양을 팽창시킬 수도 있고 타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잘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모든 게 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에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공기도 감사하고 불도 감사하고 물도 감사하고 죄 감사한 겁니다.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왕의 은혜를 알아라. 우리를 낳아 준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이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하는 거는 모두가 서로 주고 먹고사니까 말입니다. '사장(師長)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일체 만물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물이든지 초목이든지 모든 산천초목이 '나를 보고 나같이 살아라' 하고 설법을 해 주니까 말입니다. 목신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두가 '날 먹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 날 먹고 살면서도 나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하고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말 없이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근중한 줄 알고 아껴 먹어라.' 이러고 설법도 한다고요.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막 내버리지 말고 귀중한 줄 알고 먹어라. 우리도 생명이 있는 거다.' 하고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대로 우리한테 설법을 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흘러갈 때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간다. 거스르지 않고 돌아간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모두 병들고 죽지 않느냐.' 하고 설법을 합니다. 허허허…. 그래 일체 만물이 다 설법을 해 줘요.

그러니 내 스승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나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아픔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딨습니까.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쫓고 쫓기고 진화하면서 여기 가서 태어났다 저기 가서 태어났다 이쪽 자식이 됐다 저쪽 부모가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수없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당대의 부모 자식만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부모도 내 부모같이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서 부모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이쪽 자식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떠나와서 이쪽 집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면 이쪽의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모르니까, 과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벌써 과거가 돼 버리고 현실이 돼 버렸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마는 이것을 다 공부해서 지혜롭게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권투를 잘하는 선수가 조그만 애들 막 주먹질하는 걸 보고 피익 웃고 섰듯이 말입니다. '아이구, 그거 뭘 저런 걸 가지고…. 에이, 그냥 말할 것도 없구나!' 하고선 그때는 말수가 적어지죠. 공부를 하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고 또 욕심이 적어지고 집착이 적어지고, 높고 낮고 이런 것에 집착이 적어지고 반항이 적어지고 남을 원망하는 게 적어지고, 매사 게 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냥 자꾸 개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누구를, 형상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또는 이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세 가지가 다, 행과 말과 뜻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따르라 이겁니다. 따르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한마음 주인공만 믿어라 이거죠.

악업 선업, 업식이 자기한테 잔뜩 들어 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벌써 현실에 자기가 끼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현실에 끼고 있으면서 미래로 자꾸 연결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단번에 이 자리에서 해결해 버려라 이겁니다. 업식으로 나오는 모든 거를 그저 거기다가 가차 없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서 해결을 할 수밖엔 없지 않느냐.' 하고 맡겨 놔요.

질문자1(여) 제가 살면서 서원을 세우기를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고, 단 하나의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 발원하면서 걸어왔는데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딴 사람에게 거슬리는 짓을 할 때가 많은가 봐요.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합니다.

큰스님 한 가정에서 식구가 모여 살면서 생기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자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냥 증오하면서도 말은 못 하고, 말을 하려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냥 참다 참다 가슴이 멍이 들게 되는 수도 많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것을 거죽으로 "요놈의 새끼야,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남편이 그런다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복장을 썩이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다면 항상 대립이 되기 때문에 쌍방이 업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이 전부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줄의 가설입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듯이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모두가 주인공 자체는 둘이 아니니까,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고, 당신만이 공부 잘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저쪽에도 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죽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저 잘 이끌어 가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애도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을 데로 고여 들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부드러운 데로 고여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참, 아주 제일 좋구나.' 하고선 가정으로 얼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뒷면의 인연의 줄이, 법망의 줄이 이어져서 불을 켜 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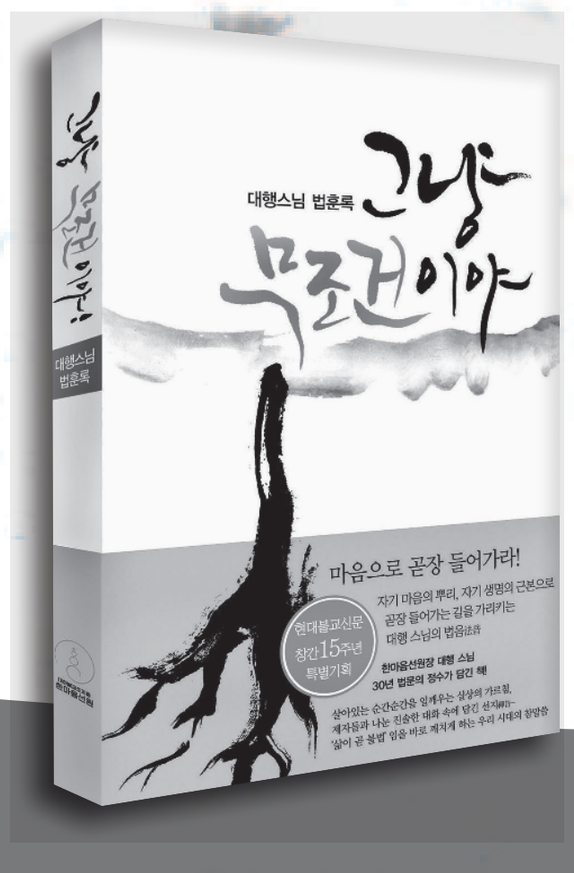
이런 분이 있었죠. 직장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가고 싶질 않고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서 술 한잔 흥건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다 귀찮고 다 메어다 패대기치고 싶고 그렇대요. 이것을 억지로는 못 하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분의 부인에게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업이 미워. 그런데 당신의 업도 그 남편의 업도 둘이 똑같지? 어느 하나도 기울고 트는 게 없어. 보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업을 모두 없애려면 남편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그렇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녹여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녹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더니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내가 괜히 술 먹어서 돈 없애고 세간 부수고…, 내가 미쳤나 봐. 여보, 나 참 미쳤나 봐." 그러고는 수박 한 덩이를 건네주면서 "이거 술 먹을 걸로 수박 사 왔지." 하하하. "아니, 소쿠리 하나만 부서져도 내 손해인데, 내가 또 사다 놓아야 될 텐데, 손해 나는 일을 괜히 했어." 그러고는 아주 우스워서 죽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져서 잘 살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라. 위로는 네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라. 그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도가 돼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투느니라.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 나투면서 모든 사람에게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지장도 되고 용신, 지신까지도 돼 주느니라. 누가 응해 달라고 하든지 응신이 돼서 전부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하하….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마힐 거사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입니다. 머리 깎고 입산한 사람이나 입산을 안 한 사람이나 마음 닦는 것은 같다는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보여 주고 또 '여러분도 공부해라' 하는 뜻에서 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시급히 업식들을 녹이고 다스리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이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요놈의 자식, 왜 공부는 안 하고 요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느냐?" 하고 그냥 밖으로만 야단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안에다 놓고 "애! 너 밥이나 먹고 다니니? 잠은 어떻게 자니? 집에 들어와서 자야 편안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인의롭게 말해 주세요. 봄에 꽃 피듯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2(여) 저는 공부를 딴 분보다 많이 못 했습니다. 마음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저 혼자서 하긴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감당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큰스님 사람은 한 찰나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놈은 누구고 그놈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놈은 누구고 자다가 일어나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놈은 누구고 생시에 이렇게 다니는 놈은 누구냐?' 이 모두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옹졸했을 뿐이지 생각이 넓다면 이 우주를 그냥 단번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삼천대천 세계를 단박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참 멋진….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참, 위로는 평등공법이 되고 아래로는 칠활궁공법이 되고, 셋째 번에는 팔수레공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들고 나면서 다양하게 자재할 때 비로소 '자재할 것도 없다. 자재한 것도 없다. 나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한 예도 없다. 나는 말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게 나오죠. 그러니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살님의 마음이나 감당하기 어렵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그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네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놈은 누구고 감당하기 쉬운 놈은 누구냐?' 하곤 그냥 거기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샘터에서 샘물이 꼬약꼬약 나올 때에 샘물 맛을 알겠죠.

>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3(여)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 같고 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나을지, 저는 수술받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스님께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그건요, 댁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질문자3(여) 마음에요?

큰스님 예. 수술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성신을 믿어야 되죠. 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수억겁 동안 이렇게 진화시키면서 사방팔방으로 끌고 돌아다녔구나.' 하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온 거를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마음의 주인을 믿을 때 성과가 있겠죠. 진짜로 믿는다면 안 해도 좋고요,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릴 거고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에 달린 거죠. 그건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자3(여)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큰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댁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고요, 약사가 되려면 약사가 되고요, 또는 마구니가 되려면 마구니가 되고요, 사람 끌어가는 사자가 되려면 사자가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허허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질문자4(여) 반갑습니다. 저는요, 합천 해인사 자운 스님 사리 친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수녀님이 그 사리를 친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요, 여기 한마음선원에 다니면 한마음선원에만 가야 되는 거다, 딴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먼젓번에 어느 회관에서 한 스님께서, 절에 갈 때는 부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스님의 썩을 육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절에 계시나 부처님은 다 같은데 왜 꼭 딴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하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계 어디에 있든 부처님은 한 분이고 제 마음이 부처이듯이 서로가 다 부처님은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시어머님께서 그러시니까 사실 시어머님이 조금 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님한테 이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말씀 잘하셨어요.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태어났어도 보살님 하나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무효입니다. 그죠? 없죠?

질문자4(여) 예.

큰스님 그렇습니다.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미움도 고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댁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고 세상이 모두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모든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평등한 생명! 평등한 생명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한 생명이다."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절에 사람이 없다면 부처가 없느니라." 그것이 왜냐? 생명은 다 똑같지마는 씀씀이는 다 달라요.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점이 모두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건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 불을 모셔 놔도 석가세존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또 문수보살은 생각을 내는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이 생각을 한다면 보현신은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현신! 즉 말하자면 화신이자 보현신이죠.

자기 다리가 어디에 부딪치면 자기 다리를 자기가 만지죠? "아이구, 아퍼!" 하고요. 이게 보현신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생각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법신입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한마음에 의해서 마음을 내고 몸이 움죽거리고 하는 것을 문수, 보현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마음이 동방에는 아촉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이 세상은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 또는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 그 이름들만 지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고걸 여러분 가정에 비유해서 본다면 그 이름이 말입니다, 자식 노릇을 할 때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형이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그렇게 이름이 많듯이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이름도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아촉불이다 아미타불이다 뭐, 또…. 그러니까 찰나에 바뀌어서 돌아가는 대로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전부.

예전에 조선 시대 때에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 붙들어다 볼기를 때리고 이랬기 때문에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칠성이다 독성이다 용왕이다 하고 전부 붙여 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 탄압을 하지 않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서 나부터 알아야만이 모두 돌아가면서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내 집의 전화통부터 놔라 이 소립니다. 내 집에 전화 놓을 때까지는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것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거에 가서 전화를 좀 하고자 하고 전화를 받고자 하고 이러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내 집에 전화를 놔서 전화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할 때에 비로소 딴 절에 가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질문자4(여) 그래서 저도 이 한마음 공부를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고, 제 주인공을 그만큼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절에 못 올 때 제가 딴 절에 가 있으면 어머님 하시는 그 말씀이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스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아야 되겠다고….

큰스님 그것도 자유입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가라 이런 게 아니죠. 병원에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인데 그것이 안 되고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억지로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질문자4(여)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제 주인공이 하는 대로….

큰스님 예,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도 누가, 아니 업식이 많아서 도둑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강도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스려서 잘해 나가는 데에 멋진 도리가 있는 거지, 아, 그걸 다스릴 줄 모른다면 안 되죠. 그냥 구덩이에 빠져도 법, 구덩이에서 나와도 법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법이라면, 그러면 잘못돼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그건 자유에 맡깁니다.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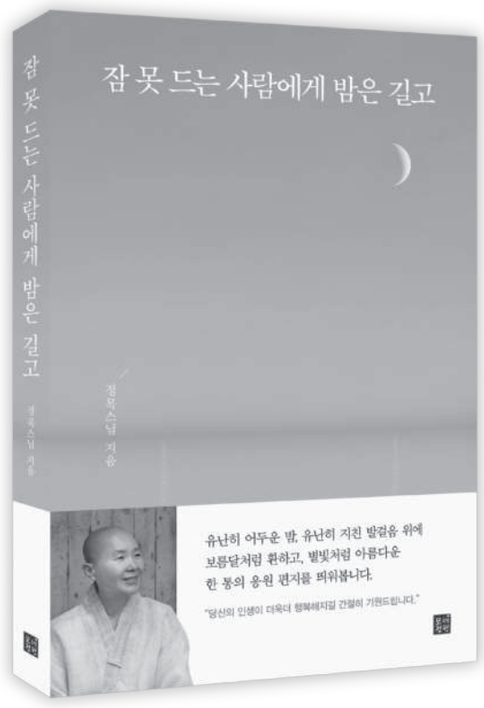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삶을 배우처럼 산다면…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코로나로 '랜선 라이프' 보편화
가상·현실생활 구별되지 않아
배역 맡게 된 배우처럼 살아가

'미나리' 윤여정, 언론인터뷰서
배우로서 "임무 완수" 강조해
결과 따라 새 배역 맡는 배우
因果·緣起적 우리 삶 맞닿아

"과거 지은 각본대로 산다"는
묘공당 대행 선사 가르침 상기
주어진 배역에 최선 다해보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현실 생활의 상당 부분이 랜선으로 대체되는 랜선 라이프가 신조류로 등장하였다. 랜선 회의·응원·여행·버스킹·집들이 등의 신조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는 라이프(생활)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이뤄지는 생활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랜선 라이프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인터넷 라이프가 진화한 형태이다.

마크 포스터가 "몸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듯이 학자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물리적 사회에서 가상사회로 이동할 것을 일찍이 예고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인터넷 공간이 현실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렀지만, 엄밀히 말해서 인터넷 공간은 본래 가상의 공간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 공간으로 인식하기 이전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현실 세계는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가상은 아닌가? 선지식들은 인간의 현재(Presence)적 삶이 허상이니 수행을 통해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한다. 만약 우리가 실제 삶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이라고 간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마치 배우가 배역을 맡아 작품 안에서 연기하듯이 말이다.

최근 배우 윤여정이 연일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연기한 그가 100년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카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윤여정은 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년간 배우로서 밤잠을 설치게 한 질문은 어떻게 내가 촬영장에서 내 임무를 완수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로서 '내 역할 완수하기'를 화두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리라. 윤여정의 이 같은 배우로서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단초를 던져준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고 그 임무를 완수한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배역을 맡게 되는 배우의 삶은 따지고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다를 바 없다.

묘공당 대행 선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대로 각본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지금 하고 돌아가는 것은 미래의 각본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설하면서, "탤런트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가지고 탤런트 노릇 하다가 막이 내리면 자기가 탤런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임을 맡아서 잘 합니다"라고 대중들에게 탤런트 같이 살아갈 것을 방편 삼아 설하곤 하였다.

그렇다면 탤런트처럼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그것은 주어진 사명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일 것이다. 맡겨진 배역에 대해 한탄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타인의 배역을 탐내지도 않으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마음가짐이다. 다음으로, 탤런트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주위의 인연과 화합하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의 자세일 것이다. 무대 위에 올려진 작품의 성패가 모든 배우들의 조화로운 연기에 달려있듯이. 마지막으로, 탤런트 같은 삶이란 좌절하지 않으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일 것이다. 탤런트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것은 맡은 역할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배역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라는 무대를 랜선 라이프처럼 가상의 세계로 간주해보자. 그리고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과 사회 내에서 탤런트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4월의 스리랑카 설날

스리랑카 대표명절 '아룻 아우룻따'는 한국의 설날과 같은 명절로 4월 14일입니다.

아룻 아우룻따 전날인 4월 13일 스리랑카 사람들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냅니다. 각 가정에서는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새해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거의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낡은 옷과 물건들을 버리는데,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아룻 아우룻따 전날 해가 질 때쯤 사람들은 그 해의 마지막 목욕을 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정화되는 특별한 행위로 생강, 겨자, 허브와 기름 등이 사용됩니다. 그날 저녁에는 모두 달을 보는 풍습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4월 14일은 새벽 폭죽과 함께 맞이합니다. 요란한 폭죽 소리와 스리랑카 전통북인 라바나 소리가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밤이면 각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집안에 등을 환하게 다시 밝힙니다. 난롯불 위에서 새로 산 냄비에 우유를 끓입니다. 이때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우유 거품이 많이 생기도록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 후에는 전날 준비한 명절 음식을 갖고 사찰로 향합니다. 사찰에서 준비한 새해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중요한 새해 풍습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시간에 일제히 요리하고 식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모든 가정에서는 우유 밥인 키리 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설음식인 전통과자 케움(Kevum)을 준비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우정은 가족 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에 음식을 이웃과 교환하여 나눠 먹습니다. 이때 음식이 담겼던 접시는 빈 상태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어떤 감정도 다 털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는 한국처럼 어른들을 찾아 절을 올립니다. 스리랑카서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어른들에게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새 해를 맞이하는 놀이를 합니다. 마을마다 일종의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오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운동과 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우승자에게 상을 주고 민속공연을 함께 관람합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스리랑카 사람들도 소박하게나마 아룻 아우룻따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음으로만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마하위하라에서는 4월 18일 일요일 비대면 방식으로 아룻 아우룻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스리랑카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함께 비대면으로 모여 명절 풍습을 즐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라바나를 치고 준비한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을 서로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는 예절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먼 한국에서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온 세계가 하루빨리 코로나 시련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공정한 해인사역 위치선정 바란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에 포함된 합천해인사역의 위치를 합천군 야로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야로면 인근에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가야산국립공원 등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는 문화역사관광지가 위치해 있으며 경상남북도와 대구광역시 등 3개 시도, 9개 시군으로의 이동이 20분 이내로 접근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합천해인사역이 제대로 검증된 곳에 설치됨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 예정지인 합천읍 서산리과 율곡면 임북리 인근에 합천군 공직자의 투기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존 해인사 역사 설치부지가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함에도, 재검토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가 지역 공직자 등의 투기 등 비리 의혹에 기인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선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직자의 투기 정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합천읍 서산리 일대 2010㎡·3999.5㎡ 부지의 논이 前 합천군청 행정국장 서모 씨의 부인 명의로 등기됐다. 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해인사역은 합천군민 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며 전국을 연결하는 수단이자 더 많은 사람과 물류를 지역으로 연계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위치 선정에 실패할 경우 외면당할 것이다. 위치 선정에 그 어떤 비리도 있어선 안되는 이유다.

장애인 포교 첫발, 공감에 있다

불교계 장애인 포교에 대한 아쉬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장애인 포교는 커녕, 정작 사찰에서 장애인 불자들이 함께 법회에 동참하는 모습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나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편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대할 때 어색함이나 머뭇거림은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과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가 최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발간했다. 장애인도 함께 부처님을 따르는 도반이라는 생각이 있어도 막상 마주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불자들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 만나면 이렇게 해요'를 부제로 한 이 책은 보리수아래가 편찬한 두 번째 장애인식개선자료집이다. 장애 유형별 특징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에티켓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던지 무조건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도움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음식점에서 동석한 장애인을 어떻게 배려할 지 등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우선 400권을 전국 주요사찰과 불교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연히 접한다면 정독해 볼만하다.

알고 이해하면 더 쉽게 마음을 열수 있다. 이 같은 교감은 따뜻한 배려로 이어지고 장애·비장애를 넘어 진정한 도반으로 함께하는 첫발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경남지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구지사 : 010-2813-8008 영주지국 : 010-9373-3778 전북지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공모주제 - 2021봄, 희망을 담다
· 봄을 맞은 사찰 풍경 및 자연경관 부처님의 가르침
· 나의 사찰과 수행
· 스승·도반·신도
·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

| 공모대상
· 응모자격 : 스님 및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국내외 스님, 외국인 스님 포함

| 응모기간
· 응모기간 : 3월 30일(화) ~ 5월 30일(일)
· 심사발표 : 2021년 6월 말경
※ 입상자 BTN 홈페이지 / 개별통보

[NOTICE]
·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하고 입상에서 탈락한 작품(파일)은 폐기함.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1인에 대해 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상금이 많은 분야만 시상함.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 접수방법
· BTN 홈페이지에서 "폰 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시 상

폰사진 공모전	
BTN 대상 (1명)	상금 2,000,000원
BTN 사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금상 (1명)	상금 500,000원
은상 (2명)	상금 300,000원
동상 (3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당선작은 자사채널(TV, VOD,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예정

| 출품 사진 구격
· 휴대폰 고화질로 촬영한 3Mb이상 10Mb 이하 JPG파일
※ 1일 3점까지 출품가능(출품비 없음)

| 심사 기준
· 내부 심사로 창의성, 스타일, 구성, 이야기, 종교성 등 종합 심사

| 문 의
· 폰사진 공모전 운영팀 / 02-3270-3417

[수상 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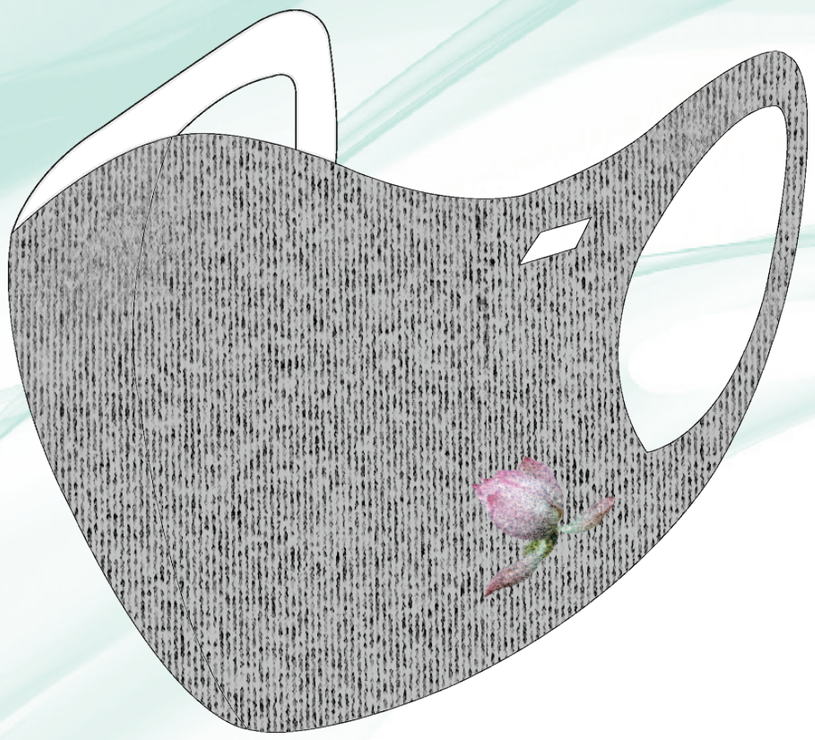
봉축행사는 "기능성 마스크"로 준비하세요.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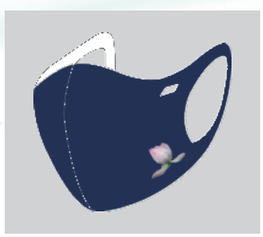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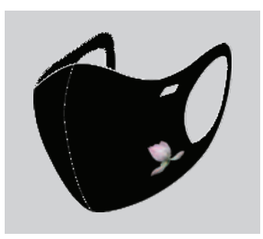
ANTI-BACTERIAL·DEODORIZATION·항균&소취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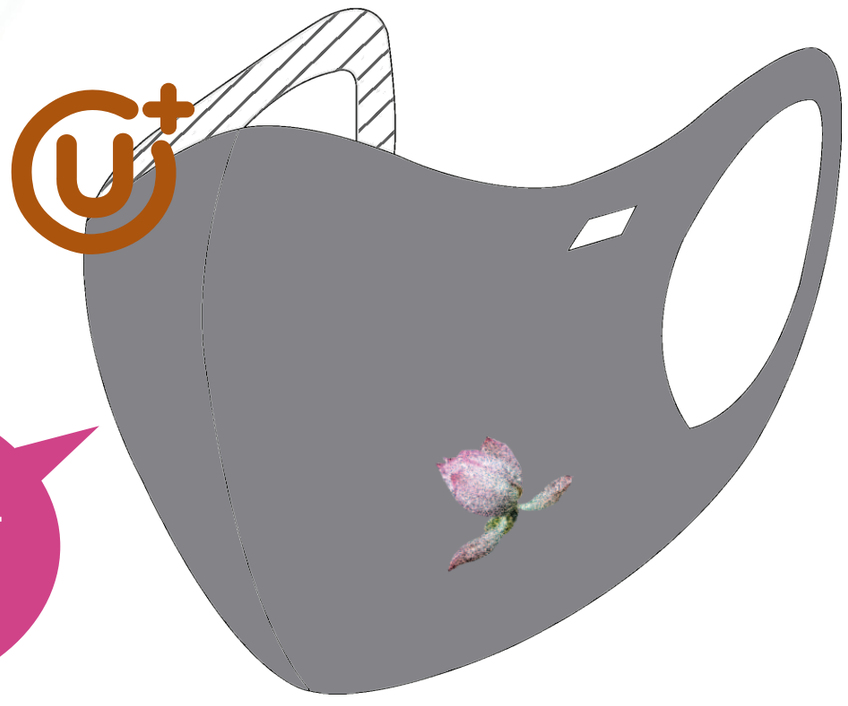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 가능하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